
2024년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2024년 8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 ■ 목 차 ■ ■

1. 개 요	-----	1
2. 세부 일정	-----	3
3. 방문 국가	-----	4
4. 시찰 내용		
프랑스	르 생카트르	----- 7
	비옥한 섬	
	스테이션 F	
	리브고슈 협의 개발 지구	
	베르시 빌리지	
	그라운드 콘트롤	
	라 데팡스	
	올림픽 경기장 설치현장	
	바토무슈	
벨기에	유럽 연합 의회	----- 72
	브뤼셀 시청사	
네덜란드	이준 열사 기념관	----- 89
	하우스텐보스	
	NDSM	
	잔세스한스	
	프레드릭 헨드릭플렌소엔 놀이터	
	암스테르담 도심 및 운하	
5. 의원별 출장 후기	-----	122

1 개 요

□ 추진목적

- 현재 서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의 선진사례가 있는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고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그들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함.
-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폐건물을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사례들을 견학하고, 서구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프랑스의 리브고슈 협의 개발지구와 라데팡스 지역의 재개발 사례 견학을 통해 서구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및 지하화 사업 이후 해당 지역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활용방안 연구.
- 규모는 작지만 실속 있는 스타트업 육성 기능을 지닌 르 생 카트르와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방문하여 지원 방식, 규모, 인프라 등을 참고하여 서구에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관 설립이나 지원 정책 사업으로의 적용 방안 연구.
- 벨기에의 유럽 연합 의회를 방문하여 선진 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 시스템 파악 및 견학.
- 네덜란드의 도시환경 경관 조성 및 도시 재개발 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서구의 친환경 도시재생 및 도시조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운하로 대표되는 네덜란드의 친수시설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서구 아라뱃길 및 청라 호수 공원 등에 접목하여 친수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출장개요

1. 출 장 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2. 출장기간: 2024. 5. 27.(월) ~ 6. 4.(화), 7박 9일간
3. 출장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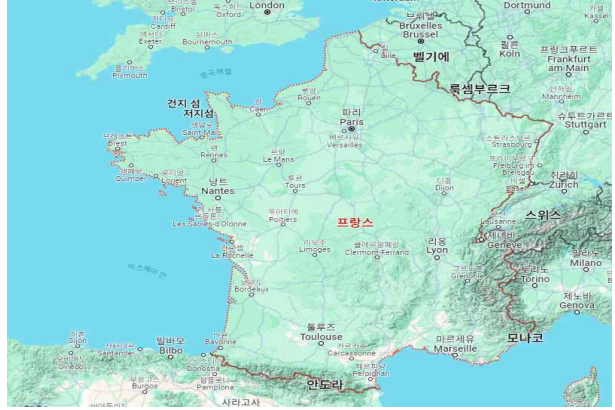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개별업무
1	환경경제위원회	의원	서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자 인솔·관리 ■ 도시재생·개발 사례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 연구
2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송승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자 인솔·관리 ■ 스마트시티 구축 및 플랫폼 도입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 연구
3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김동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자 인솔·관리 ■ 스타트업 육성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정책 연구
4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자 인솔·관리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5	의회사무국	행정7급	강익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단 행정지원 총괄 ■ 방문국(기관) 관련 자료수집 ■ 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2 세부 일정

일 시	업무수행내용	비 고
5. 27.(월)	■ 인천국제공항 출국 및 샤를드골 공항 도착	
5. 28.(화)	■ 르 생카트르 ■ 비옥한 섬	
5. 29.(수)	■ 스테이션 F ■ 리브고슈 협의 개발지구 ■ 베르시 빌리지 ■ 그라운드 콘트롤	리브고슈 협의 개발지구 탐방 대체
5. 30.(목)	■ 라 데팡스 ■ 바토무슈 ■ 파리 북역 출발 및 브뤼셀 중앙역 도착	이시레몰리노 대체
5. 31.(금)	■ 유럽 연합 의회 ■ 브뤼셀 시청사 ■ 브뤼셀 중앙역 출발 및 스키펀 공항역 도착	
6. 1.(토)	■ 이준열사 기념관 ■ 하우스 텐보스	스타트업 빌리지 대체
6. 2.(일)	■ NDSM ■ 잔세스한스	
6. 3.(월)	■ 암스테르담 도심 및 운하 ■ 스키펀 국제공항 출발	
6. 4.(화)	■ 인천국제공항 도착	

3 방문 국가

□ 프랑스



공식국호	프랑스 공화국
정부수립	1958년 10월 4일 (제5공화국)
면적	663,336km ² (해외영토 119,396km ² 포함)
인구	64,881,830명, 세계 23위
수도	파리
1인당GDP	46,315 달러, 세계 23위(2023 IMF 기준)
환율	1 유로(€) = 1,492.89 원(₩)
정부형태	공화제, 이원집정부제, 양원제
대통령	에마뉼엘 마크롱
총리	가브리엘 아탈
행정단위	레지옹 13개, 데파르트망 95개, 아롱디스망 332개, 캉통 2,054개, 코뮌 36,444개

□ 벨기에



공식국호	벨기에 왕국
왕국수립	1831년 7월 21일 벨기에 왕국 성립
면 적	30,528km ²
인 구	11,677,348명
수 도	브뤼셀
1인당GDP	53,377 달러
환 율	1 유로(€) = 1,492.89 원(₩)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양원제, 연방제
국 왕	필리프
총 리	알렉산더르 더크로
행정단위	지역 3개, 주 10개, 기초자치단체 581개

□ 네덜란드



공식국호	네덜란드
왕국수립	1815년 3월 16일
면적	41,543km ²
인구	17,606,532명 (세계 71위)
수도	암스테르담
1인당GDP	63,750 달러 (세계 11위)
환율	1 유로(€) = 1,492.89 원(₩)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양원제
국왕	빌럼알렉산드르
총리	마르크 뤼터
행정단위	주 12개

4 시찰 내용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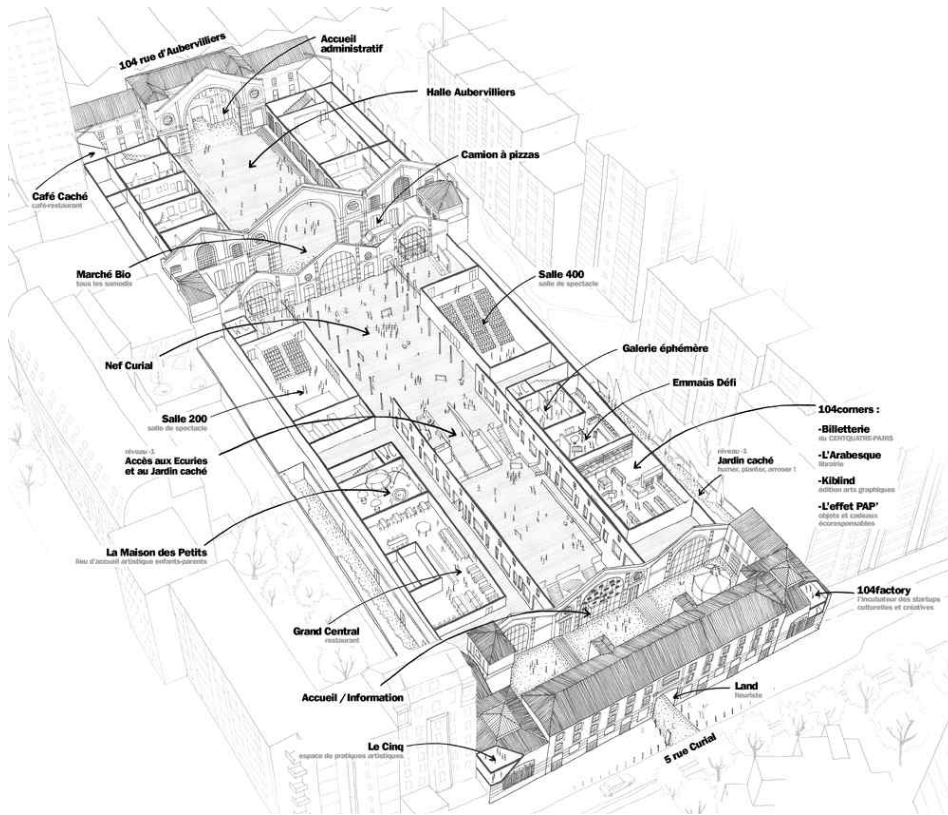
1. 르 생카트르		
가. 방문지 정보	8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10
다. 사진 자료	19
2. 비옥한 섬(Îlot fertile)		
가. 방문지 정보	21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26
다. 사진 자료	29
3. 스테이션 F		
가. 방문지 정보	30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32
다. 사진 자료	41
4. 리브고슈 협의 개발 지구		
가. 방문지 정보	42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44
다. 사진 자료	46
5. 베르시 빌리지		
가. 방문지 정보	47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49
다. 사진 자료	51
6. 그라운드 콘트롤		
가. 방문지 정보	52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54
다. 사진 자료	56
6. 라데팡스		
가. 방문지 정보	57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58
다. 사진 자료	62
7. 올림픽 경기장 설치 현장		
가. 방문지 정보	63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64
다. 사진 자료	65
8. 바토무슈		
가. 방문지 정보	66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68
다. 사진 자료	71

1. 르 생카트르

도시재생에 문화·예술·커뮤니티 센터 기능과 스타트업 육성 기능을 도입하여 시립장례식장 폐건물을 종합예술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킨 성공사례 견학 및 운영 방식 벤치마킹 명목

가 방문지 정보

□ 건물 구조



현지 명칭	Le Centquatre - Paris / 104 Paris
위 치	104 rue d'Aubervilliers 75019 Paris
개관연도	2008년
면 적	39,000m ²

- 1874년에 서민들을 위한 장례식장으로 건립되어 이용되던 건물
을 파리 시장이었던 Bertrand Delanoë가 도시 균형 재개발 프
로젝트를 통해 건물의 외형을 유지한 채 시민을 위한 공공 예
술문화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함.
- 2008년에 문화예술 센터로 개관한 르 생카트르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19구의 주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예술 경험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
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해당 기관 접촉 인물

구 분	주요이력
 줄리엣 피나르 (Juliette Pin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 위: 104엔지니어링팀 문화기획 개발 책임자 ▪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르본 대학 도시 및 지역 계획 박사 - 소르본 대학 유산 및 문화 전문 지리학 석사 - SNCF모빌리에 과도기적 도시계획 접근법 참여 - 폐건물 도시 재생 프로젝트 다수 참여 - 구스타프 에펠 대학 강사 - 현재 104엔지니어링 팀의 활동 개발 및 파트너 네트워크 조정 업무 수행 중
 시몬 르 기우 (Simon Le Guill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 위: 104엔지니어링팀 문화도시 프로젝트 매니저 ▪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도시계획대학 건축 및 도시 프로그램 전공 - 시앙스 포 릴 문화 기관 관리 전공 - 참여적 도시 계획의 전술적 접근 방식 개발 - 현재 도시 프로젝트 및 하이브리드 문화 장소 개발 프로젝트 관리 지원 임무 수행 중

르 생카트르의 핵심 가치는 ‘공개·공유·혁신’으로,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예술문화 프로젝트들이 진행됨.

르 생카트르는 프랑스의 EPCC(문화협력공공기관) 중 하나로서, 파리의 공공기관으로 총 90여 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며 매년 15개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이곳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1~2년 단위로 지원을 받으며 육성됨.

가장 먼저, 르 생카트르는 입구부터 ‘모두를 환영한다’는 의

함. 르 생카트르의 공간 대여는 한 시간에 단 2유로에 불과함.

-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것은 공간이 탁 트여있다는 점으로, 이것은 르 생카트르의 ‘공개’와 ‘공유’라는 핵심 가치 때문인데, 이곳에서는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서로 자신의 활동을 모두 공개적으로 하고 있음. 공간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간을 혼자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글링, 안무, 연기연습 등 각자 다채롭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음. 이런 과정을 걸쳐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 결과물로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키기도 함. 또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약을 할 필요는 없으며 그저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용하면 되도록 열려있다고 함.
- 르 생카트르는 현재 가족 단위와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에덴 정원’을 준비 중인데, 원예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19구의 주민들을 위해 르 생카트르의 건물 주변 빈 공간을 빌려주어 농장이나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며, 학교와도 협약을 맺어 교육 과정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함.
- 르 생카트르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두 시간가량 열리는 소규모 유기농 시장(Organic Market)은 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및 상품들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으로,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품질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서 생산자는 물론 구매자들에게도

만족도가 높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어 인기라고 함.

-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살사·힙합·기공 체조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고 함.
- 2층으로 올라가면 르 생카트르의 104팩토리(104Factory) 프로젝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사무실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는 산업 디자인, 소규모 영화 제작 지원 사무소, 극단 등이 들어와 있음. 104팩토리는 매년 15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은 저렴한 사무공간 대여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 및 관련 업무 전문가들과의 연결, 맞춤형 강의, 비즈니스 트레이닝, 운영 자금 연결 지원, 실험 지원 등 많은 것들이 제공됨.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는 다양한 시상식 수상 경력으로 입증되기도 하는데 하나의 예로 최근에는 Novaya라는 뉴미디어 업체에서 제작한 Noire라는 VR영화 작품이 칸 영화제와 테아(Théa)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함.
- 이들은 매년 15개의 스타트업만을 선정하여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데, 이들을 선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혁신’으로 무조건 예술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혁신적이냐에 따라 선정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다수만을 위하기에 소수는 소외당하여 사라지고 문화를 점점 일체화 시키는

현재의 디지털 시스템 자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롭고 개성 있는 대안 디지털 문화를 자체적으로 생산·공유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스타트업 또한 선정되어 현재 지원받는 중임. 또한 기술의 발전 정도보다는 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혁신과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임. 이외에 필수적인 지원 요건으로는 일단 설립자가 파리지민이어야 하며,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기업이어야 함.

□ 스타트업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이 오가는 곳인데다가 예술가들, 사업가들, 기업 등등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임. 또한 이곳에서는 선정된 스타트업들에게 경쟁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을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정된 다른 스타트업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서로 협업하여 더욱 혁신적인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함. 이 때문에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동일한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들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스타트업들을 선정하여 서로 보안을 유지하거나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들의 노하우임.

□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하기 위한 수익 창출 방법은 바로 장소 대관으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넓은 홀은 보통 전시 혹은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르 생카트르 자체 행사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료 전시 및 행사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대관비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이는 다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스타트업 육성으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함.

- 르 생카트르 건물 내부에는 상영관 및 컨벤션 홀로 대관이 가능한 공간이 각각 200석과 400석 규모로 두 곳 존재하며, 과거 장례식장일 당시 마구간이나 차고로 쓰이던 지하공간 또한 현재는 전시 및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개조되어 대관 사업에 이용되고 있음.
- 또한, 르 생카트르는 104엔지니어링(104ingénierie)팀을 운영하는데, 이들을 통해 전시나 행사, 축제, 공연 등을 기획하여 타 지역에서 투어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문화 행사 및 기관의 기획·설계 등의 전략적 업무 지원 및 유명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함.
- 르 생카트르 내부에는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La Maison des Petits) 또한 마련되어 직원들뿐만 아니라 르 생카트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어린이집은 유명 디자이너의 디자인으로 설계된 공간으로, 영유아들을 위한 심리학박사와 예술가가 상시 배치되어 있어 아이들을 보살펴 줌. 어린이집 옆에는 대기실도 마련하여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해두었음. 영유아는 물론 영유아 부모들도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문화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고 함.

이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최근 생긴 Le19M이라는 문화공간에도 르 생카트르 쪽이 공식 참여하여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며, 상당히 주목받는 시스템이라고 함.



르 생카트르 내부에 있는 어린이집 La Maison des Pet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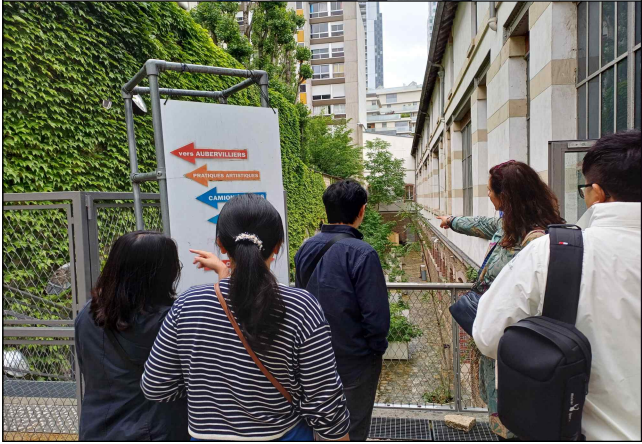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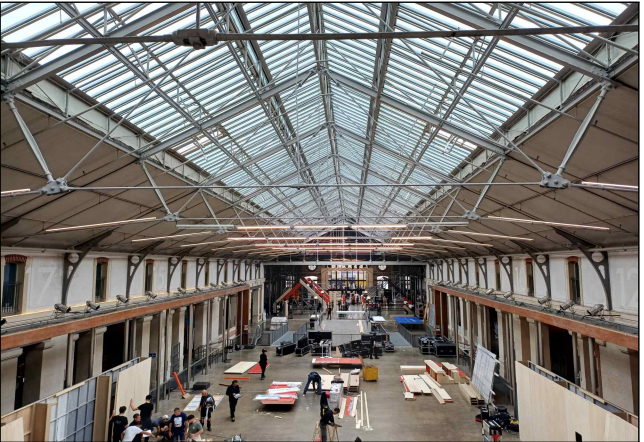
- 그 바로 옆에 위치한 Emmaus라는 빈티지 가게는 기부받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자선 가게로, 기부받은 물건을 새로운 물건 혹은 예술품으로 재창조하여 판매하는 가게이며, 수익금은 노숙자와 실업자들의 취업 교육 및 지원에 쓰인다고 함. Emmaus는 1949년 파리에서 설립된 비영리 자선 단체로, 현재 전 세계 400개 지점이 넘는 국제적인 자선 단체임.
- 이외에 서점, 일러스트 매장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었음.

- 주 건물 뒤에 있는 부 건물에도 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전시회가 한창이었음. 해당 전시회는 매해 같은 소재로 진행되는 전시회지만, 해마다 다른 예술가를 통해 진행되며 해당 연도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전시임. 그래서 같은 주제로 전시되더라도 매해 새로운 혁신을 통해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는 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었음.
- 홀에서는 전시회가 진행되는 중임에도 예술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했는데, 악기 연습, 안무 연습, 생일파티, 연극 대본 연습 등 한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음.
- 옆에 분리된 건물에서는 공유 사무실 및 회의실을 설치해두어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제공하고 있었음.
- 전체적으로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이 강했으며, 기관의 공개·공유·혁신이라는 핵심 가치와 이용자들의 편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 운영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순수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사업적인 면에서의 예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성과를 내는 면은 우리 구에서도 받아들여서 지역 내 예술가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창업 고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임.

-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경인 아라뱃길 청년창업공간에서 설립한지 3년 이하인 스타트업을 모집하여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비로 월 최고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청년센터 1939에서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단기 특강을 준비하여 진행하기도 함. 하지만 두 시간여의 강의와 사무공간·금액 지원만으로는 당장 눈앞의 운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르 생카트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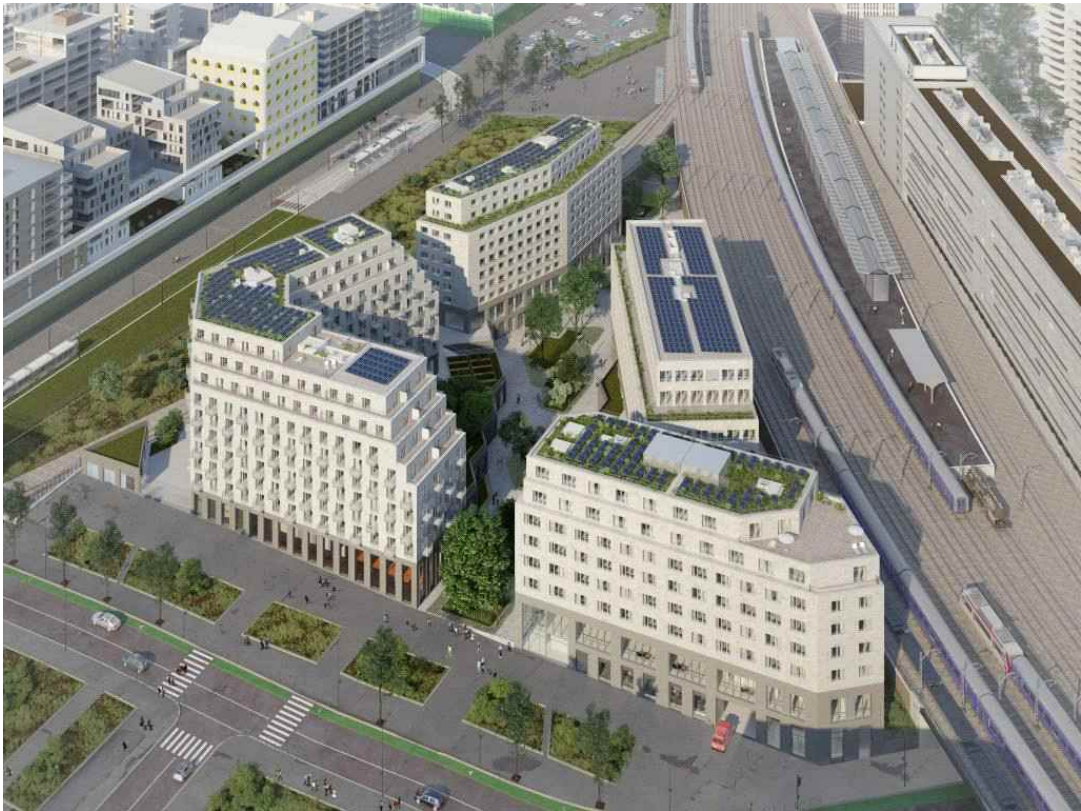


2. 비옥한 섬

검단신도시 휴먼 에너지 타운 조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도시재생과 탄소중립의 결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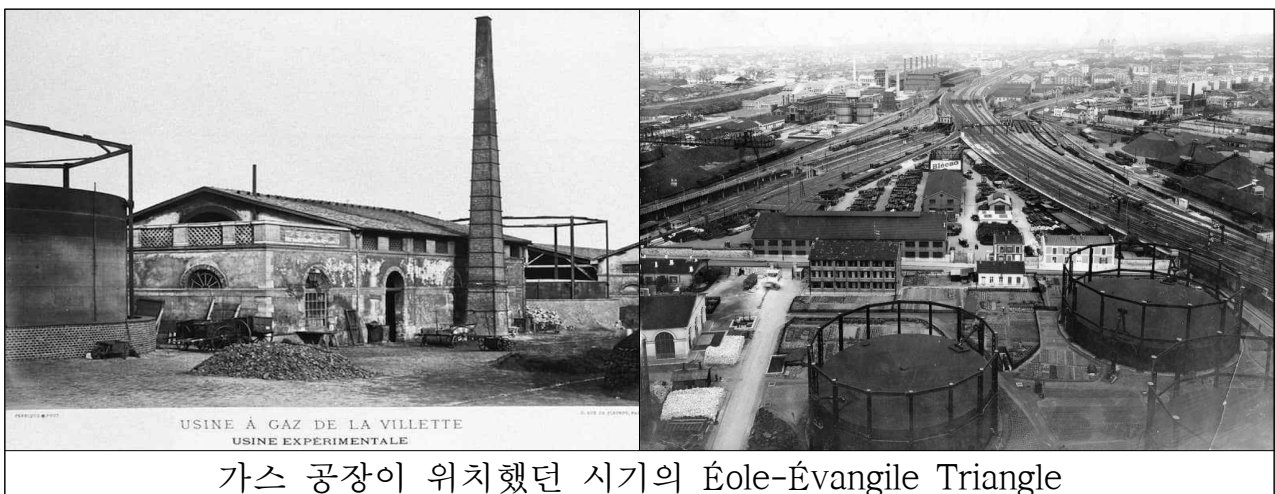
가 방문지 정보

조감도



현지 명칭	îlot fertile
위 치	198 rue d'Aubervilliers, 75019
개관연도	2022년
면 적	34,000m ²

- 파리 19구에 있는 최초의 탄소제로 스마트시티로, 과거 산업지구였던 황무지에서 농업, 환경교육, 재활용 및 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주거단지로 조성된 특수지구.
- 주거동, 커뮤니티 센터, 연구동, 주민복지시설, 학교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농업, 재활용, 환경교육, 탄소중립 기술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용 리빙랩을 갖추어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곳임.
- 2014년 파리시에서 파리의 혁신적인 재창조와 도시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인 «Appels à Projets Urbains Innovants» Réinventer Paris의 첫 번째 프로젝트 공모를 하여 2016년에 여러 후보들 중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음.
- ‘비옥한 섬’의 위치인 삼각형 모양의 부지는 École-Évangile Triangle이라고 불리는데, 19세기 중반 파리의 산업 발전의 기원이 된 장소로, 1858년에 거대한 가스 공장이 설립되어 1955년까지 약 100년 가까이 운용되었던 장소였음.



- 이후 파리 북동쪽 개발의 일환으로 Rosa Parks역이 2016년 말 개장하고, 여러 고속철도 및 트램과 전철이 지나는 허브가 되면서 파리 중심지와 접근이 쉬워지자 역 바로 옆에 있는 Éole-Évangile Triangle 황무지가 도시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되었고, 이에 파리의 혁신적 도시개발 프로젝트 장소 23개 후보 중 최종 선정됨.



비옥한 섬이 위치하기 전의 Éole-Évangile Triangle

- 프랑스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링크시티가 파리시와 계약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실현하였으며, 2022년부터 10년간 ‘비옥한 섬’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생활 및 동식물의 생태를 모니터링하여 파리시 정부로 보고하게 됨.
- 건설 이후 단지 운영뿐만 아니라 건물 건축을 위해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자재를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저탄소 콘크리트를 주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이후에 자재들이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건축하였음.

- 옥상에는 1000m² 면적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패널의 냉각 또한 따로 냉각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 아래에 재배되는 식물들에 의해 자연 냉각되는 시스템이라 환경친화적임.



비옥한 섬 옥상의 태양광 패널

- 또한, 모든 건물에는 혁신적인 열 회수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pompe à chaleur Facteur 7® (열 펌프 팩터 7) 기술을 사용해 샤워기 또는 식기세척기의 폐수에서 열을 흡수하여 온수가 필요한 곳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로 변환함. 열 흡수 이후

차가워진 폐수는 건물 아래를 지나 냉각수 순환관으로 투입되어 사무실 냉방을 위해 재사용됨.

-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기술로 건물 간에 생성된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됨.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15분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파리 내에서도 ‘2분 도시’로 화제가 된 만큼, 작은 구역 내에서도 철도역과 바로 이어지는 출입구를 비롯하여 단지 내 구성이 단출한 듯하면서도 필요한 것들로 잘 구성되어 있음.
- 간단한 식당들, 공유 사무실, 커뮤니티 센터, 학생 기숙사, 호텔 등 여러 가지 시설로 구성된 건물 4동이 함께 마주 보고 모여 있는 형태라서 각 건물 간의 이동이 수월함.
- 비옥한 섬 단지에서는 차량의 진입이나 이동이 제한되고, 출입구와 이어져 있는 전철이나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 친환경적인 부분 외에도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임.
- 단지 내에 건물이 위치하지 않은 구간과 테라스·발코니 등은 최대한 녹지와 텃밭, 과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단식 구조의 건물 용지도 최대한 녹지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실제 거주 환경에 대한 경험을 묻고 싶어 단지 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즉석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흔쾌히 수락하여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었음.
- 질의응답

1. 비옥한 섬에서의 생활은 어떤가.

- 쾌적하다.

2. 실제로 체감되는 다른 거주 시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 근거리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문밖에 나서기만 하면 식당, 체육시설, 공원, 문화센터가 있어 매일 호텔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3. 파리의 첫 탄소제로 지구로 설립된 곳인데, 그런 점에서의 차이점은 따로 없는지.

- 체감되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오히려 그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자면 이곳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패널을 이용하여 저장된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여기 있는 식당 중 한 곳은 햄버거를 파는 곳인데, 햄버거도 저탄소를 위해 만들어진 햄버거라서 그런지 맛이 없다.
(웃음)

4. 그렇다면 단점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가.

- 이곳은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라 그 점이 조금 불편했으나, 지금은 규모는 작긴 하지만 주차장이 바로 옆 인근에 있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기에 그 점은 해결이 되었다. 또한 대중

교통이 바로 옆에 있어 크게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은 아니다.

5. 다른 사람들에게 입주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 물론이다. 지금은 소규모지만 이런 곳이 점점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인천 도시 공사에서는 ‘넥스트시티 검단’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중 에너지 자족 시범단지로 조성 예정인 휴먼 에너지 타운이 비옥한 섬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 주택 용지 및 기반 시설에 식생 체류지와 옥상녹화, 칩투 빗물받이 등이 적용되고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으로 지어질 예정이라 하니, 비옥한 섬처럼 생활 반경 내에 식당·학교·병원·마트 등의 편의시설들과 대중교통이 들어선다면 탄소 발생을 줄이면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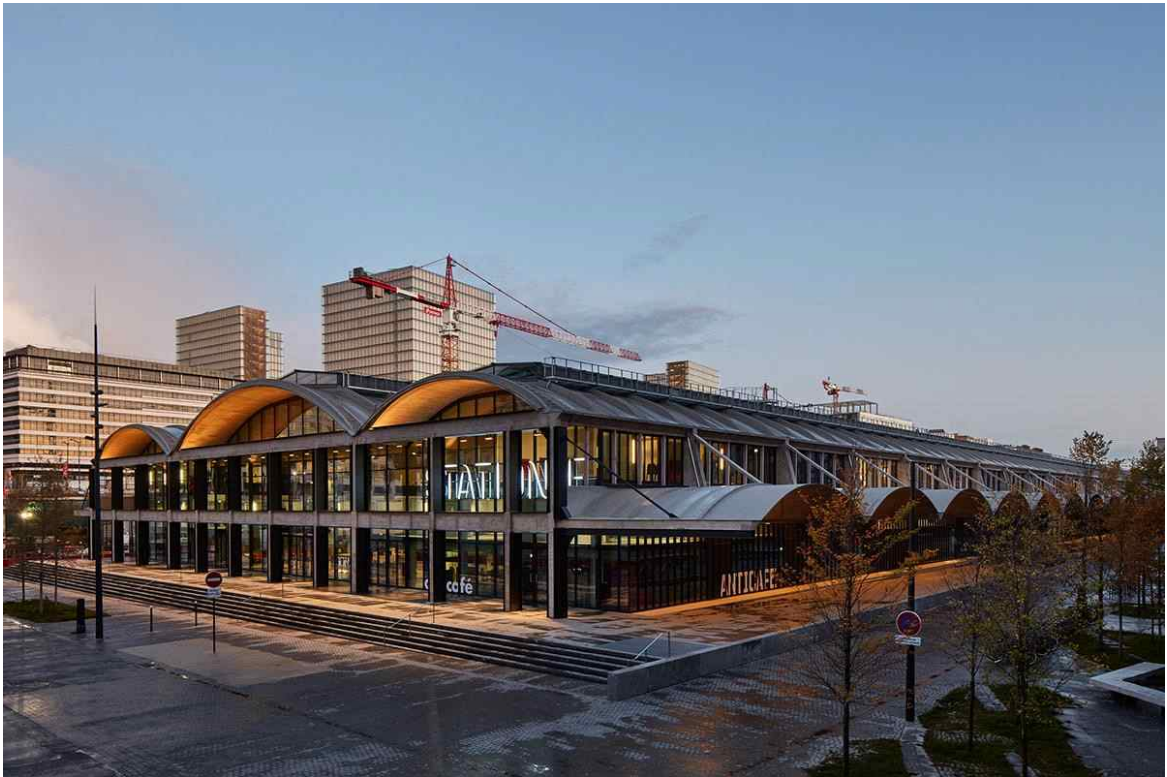


3. 스테이션 F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 방문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센터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인프라 벤치마킹 목적

가 방문지 정보

전경사진



현지 명칭	Station F
위 치	5, parvis Alan-Turing, Paris, France
개관연도	2017년
면 적	34,000m ²

- 파리 13구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로, 1,000여 개의 스타트업과 그에 속한 4,500여 명의 인원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곳.
- 설립 이래 약 50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90%가 넘는 기업들이 여전히 운영 중으로, 최상급의 지원 및 교육을 자랑하는 시설임.
- 한국창업진흥원(KISED)의 공식 파트너인 HEC인큐베이터가 한국 스타트업 중 일부를 선별하여 스테이션 F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네이버가 입주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는 곳으로, 지난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이곳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스페이스K’를 설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장소임.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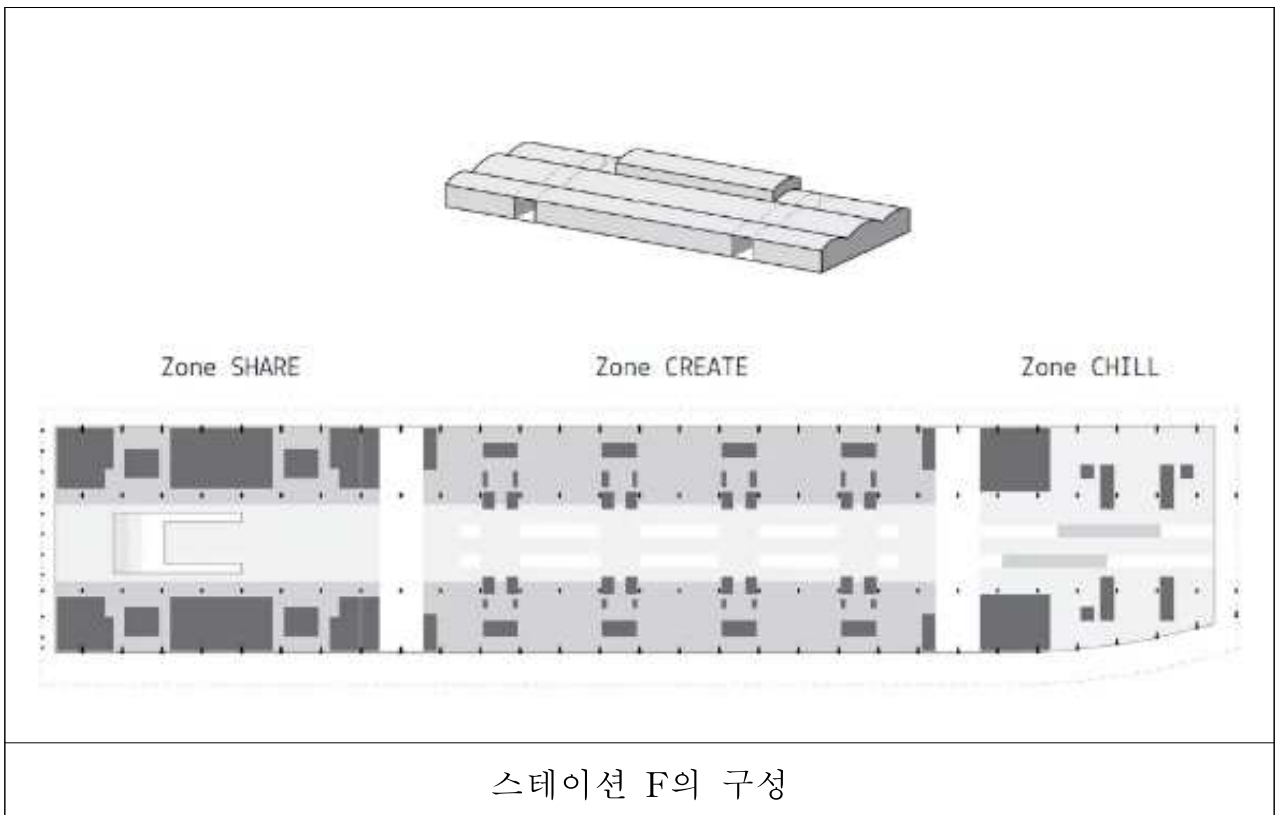
해당 기관 접촉 인물

구 분	주요이력
 <p data-bbox="236 882 528 967"> 왈리드 에잇 목타르 (Walid Ait Mokhtar)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00 725 1270 763">▪ 직 위: 스테이션 F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 스테이션 F는 본래 철도청의 열차 창고로 쓰이던 건물을 활용하여 만든 스타트업 캠퍼스로, 프랑스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의 통신사인 Free의 설립자 Xavier Niel이라는 사람이 2017년 6월에 개관한 장소이며 세계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임. 이곳은 Xavier Niel 개인의 자금으로만 설립된 곳으로, 설립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의 투자는 일절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관식에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초대했다는 일화가 유명함.
-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온 Xavier Niel이 자신과 같은 고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했다는 이곳은 매년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곳임.
- 프랑스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트업들도 지원하는데, 전체 스타트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외 기업이

며, 한국 기업들도 이곳에 입주해있음.

- 이곳에서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입주하여 2년간을 머물 수 있다고 하며, 그 이상 입주도 가능하나 전략적 지원은 받을 수 없음.
- 스테이션 F는 총 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유 공간(Share Zone)과 창조 공간(Create Zone), 휴식 공간(Chill Zone)으로 나뉘어 있음. 공유 공간과 창조 공간은 관계자들만 입장 가능한 공간이며, 휴식 공간만이 일반 대중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임.



- 공유 공간은 모든 스타트업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지하

로 뚫려있는 강당과 60여 개의 회의실, 3D프린터와 목재·금속 작업장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물들이 설치되어 있음. 주로 외부 전문가나 사업 파트너를 초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 이용됨. 이곳의 중심엔 넓은 홀이 있는데, 이곳은 스테이션 F 내부의 자체적인 행사도 진행되지만, 평상시에는 외부에서 대관하여 컨벤션을 진행하거나 전시 등을 여는 장소라고 함. 이 홀을 포함하여 스테이션 F의 여러 장소에서 연간 600여 건의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르 생카트르처럼 수익 창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 셈임.



스테이션 F의 공유 공간 Share Zone

- 창조 공간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으로, 이곳에 입주해있는 스타트업들의 사무실은 물론이고 이들을 멘토링해줄 수 있는 기업들과 전문가들의 사무실도 공존하는 구역

임. 이곳에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애플,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물론 패션·뷰티 기업인 LVMH, 로레알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들의 사무실이 있어, 스타트업들이 사업 진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어 빠른 피드백이 가능함. 또한, 대기업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이나 강연도 들을 수 있으며 성장이 기대되거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상주한 대기업들로부터 직접적인 투자를 받거나 계약을 할 수도 있기에 스테이션 F로 입주하려는 경쟁이 치열함.

- 스테이션 F는 스타트업 육성 공간만이 아니라 캠퍼스로, 이곳에 들어오는 스타트업들은 육성(incubator) 혹은 가속(accelerator)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에 맞추어 코칭을 받게 된다고 함.
- 이곳에는 투자자들의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매달 스타트업들이 내놓은 성과를 확인하고, 스타트업들은 투자자들과 그 자리에서 바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 투자나 후원을 받기가 훨씬 수월함.
- 이뿐만 아니라 스테이션 F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집기 구매나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많은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점이 많다고 함.
-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곳에서는 스타트업끼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임. 전 세계 유수의 인재들끼리 모여 서로 인맥을 쌓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얻는 이점이야말로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며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점이라고 함.

- 스테이션 F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테이션 F 자체 내부 프로그램으로는 Founders Program(초기 단계 집중 프로그램)과 Fighters Program(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두 가지가 핵심 프로그램임.
- Founders Program의 경우 설립 초기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입주 후 첫 3개월 동안 적응 기간을 거치고 여러 가지 강의 및 컨설팅을 거쳐 성과를 내놓아야 함. 만약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3개월의 기간을 한 번 더 주지만, 또 다시 성과가 없다면 탈락하게 됨. 프로그램 내 타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놓은 스타트업은 자금 지원과 함께 1년간 최고의 지원을 받게 됨.
- Fighters Program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배경을 지닌 기업가 지망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형편은 어렵지만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야망과 열정을 지닌 난민이나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첫 한 달간 온라인 혹은 최소 일주일에 두 번의

출석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면 6개월간 스테이션 F에 입주하며 성취 가능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이후 해당 계획 과제가 실제로 비전이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입증되면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1년간 추가로 스테이션 F에 공식 입주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외에 30가지가 넘는 Partners Program(기업 협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는 국내 대기업인 네이버가 지원하는 스페이스 그린이라는 디지털 가상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음. 이 외에 메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사업 지원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사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전세계 유수의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임.
- 스테이션 F는 인근에 복지시설을 완비한 숙소를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여 입주한 기업가들이 생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본적인 생활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온전히 사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함.



스테이션 F의 식당가 Chill Zone

□ 마지막으로 휴식 공간은 식당가 겸 카페가 들어선 공간인데,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된 유일한 공간임. 이곳은 화려하고 독특하게 꾸며진 공간으로, 이전에 역이었던 점에 착안해 실제 쓰였던 열차 두 량을 전시하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음. 업무에 지치거나 활력이 필요할 때 찾는 공간으로, 식사를 위해 따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업무 효율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함.

□ 질의응답

1. 스테이션 F의 F는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다.

- F는 Free! 자유롭게 상상하셔도 좋다. 확실하게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전 역 창고로 쓰일 때의 이름인 La Halle Freyssinet에서의 F를 따왔다는 말도 있고, 미

래(Future)를 뜻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정답은 없으니, 무엇을 상상하시든 가능하다.

2. Founders Program과 Fighters Program의 교육과정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 Founders Program은 이미 기업가로의 첫 발걸음을 내디고, 사업 구상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설립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교육을 듣게 된다. 하지만 Fighters Program은 기업가로서의 경험이 적고, 배경 환경이 여의치않은 기업가 지망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기초적인 사업구조 교육부터 시작하여 기업 운영법 등을 익히게 된다. 초기 교육과정 이후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는 비슷하게 진행되나, 요구하는 성과물의 기준은 차이가 있다.

3. 우리 구에도 스타트업 지원 센터를 만들기 위해 이곳을 벤치마킹하려 한다.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적인 기업가들로 구성해야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높은 스타트업들로 구성되어야,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분위기를 형성해나간다. 내 직책이 커뮤니티 코디네이터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스타트업 간의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야 소통·협력·경쟁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 속도가 빨라

지고 성과물의 질이 달라진다. 스타트업 선정과정의 기준을 정확히 하고, 평가를 엄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 사진 자료



4. 리브고슈 협의 개발 지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지역의 단절된 도시기능과 생활권 복원 방안 연구를 위해 우수 도시재생 사례인 리브고슈 개발지구 견학

가 방문지 정보



현지 명칭	Paris Rive Gauche
면적	1,300,000m ²
설립연도	1992 ~ 2030(예정)

- 파리 리브고슈 협의개발지구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센강의 왼쪽에 위치한 파리 13구를 재정비하는 구역이며 1991년 파리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 중임.
- 이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과거 철도·해상교통이 발달한 도심 공업지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뒤처지면서 낡고 오래된 공장과 창고가 모인 미개발 지역이 된 리브고슈 지역을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지상 터널을 만들 듯 철로 상부를 덮어 인공지반을 조성하고 상업·공공시설, 민간·임대주택, 녹지공간을 개발했기 때문임.
-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 제한을 37m에서 137m로 대폭 완화하자 기업과 자본, 사람이 모여들면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선순환 개발 효과가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철로 위 인공지반에 새로운 생활 부지가 성공적으로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변동사항: 당초 ‘리브고슈 협의 개발지구’의 전반적인 구조 및 일부 구역을 직접 탐방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였으나, 폭우 및 강풍으로 인하여 실내에서 리브고슈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정 중 일부만을 소규모 탐방하는 것에 그쳤으며, 이를 대체하여 연수 계획 중 일정상 제외하였던 베르시 재개발지구의 도시재생 성공사례인 베르시 빌리지와 그라운드 콘트롤을 견학하기로 변경함.
-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는 센강의 왼쪽 연안에 속하는 파리지 13구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파리의 중심부와 직선거리로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교통이 좋아 프랑스 국내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과의 훌륭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철로 부지와 센 강으로 인해 강 반대편과 단절되어 낙후된 지역이었던 13구에 공공시설과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도심으로서의 기능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물류 운반을 위해 사용돼 온 철로 상부를 9m 높이의 인공지반으로 덮은 후, 파리의 고속전철인 TGV 역을 중심으로 주거 지구와 사업 지구, 국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구,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상업 지구로 나누어 구역별로 확실한 목적을 두고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계획을 세워 개발하기로 함.
- 1991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90년

대 중반의 경제적 위기와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 저조한 민간투자로 인하여 재개발은 더디게 진행되었음. 그러던 도중 1997년에 승인된 새로운 재개발 계획과 새로운 시장의 지휘에 따라 리브고슈의 옛 건물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대학교와 공공임대주택은 더 많이 건설하고 고층 높이 제한을 크게 완화하면서 민간투자 유치에도 성공하게 되었고 2000년대 부터 현재까지 수월하게 진행되어왔음.

- 폐쇄된 밀 창고와 방앗간 건물들을 대학 건물로 활용하고, 앞서 방문했던 스테이션 F의 경우도 철도청의 철도 창고로 쓰이던 건물을 스타트업 캠퍼스로 활용한 것으로, 리브고슈 프로젝트의 도시재생 사례 중 일부임.
- 우리 서구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일반 도로화할 예정으로, 구간의 너비도 리브고슈 협의 개발지구만큼 넓지 않아 현재는 해당 부지를 녹지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긴 하지만 간단한 무대 설치나 작은 커뮤니티 센터, 소형 도서관, 전시장 등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구간을 테마별로 나누어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문화생활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었음.

다 사진 자료



5. 베르시 빌리지

베르시 재개발지구에 위치한 문화·쇼핑 공간으로, 19세기에 대형 와인 저장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다양한 카페, 레스토랑, 상가로 바꿔 활용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

가 방문지 정보



현지 명칭	Bercy Village
위 치	Cour Saint Emilion 28 rue François Truffaut, 75012 Paris
설립연도	2001

- 변동사항: 폭우 및 강풍으로 인하여 리브고슈 협의 개발지구 탐방이 축소되어, 연수 계획 당시 일정 문제로 포함하지 못했던

베르시 빌리지를 탐방하기로 함.

- 1990년 파리시에서 개최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로, 19세기 이후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총 43개의 와인 창고 건물을 쇼핑센터로 바꾸어 활용하는 것이 목표였음.
- 베르시 빌리지의 동쪽 끝에는 UGC라는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서쪽 끝에는 베르시 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1997년에 조성된 140,000m² 면적의 베르시 공원이 있으며, 강 건너편에는 리브고슈 협의 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어 직장인들 및 거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사랑받는 장소임.
-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와 이벤트 등이 자주 열리기 때문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곳임.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폭우 및 강풍을 동반한 악천후로 인하여 길거리 공연 등은 볼 수 없었으나, 베르시 빌리지의 과거 모습과 변천 과정에 대한 사진전은 볼 수 있었음.
- 베르시 빌리지의 바닥에는 과거에 와인의 운송을 위해 사용했던 철길이 남아있으며, 건물들의 외관도 거의 그대로 활용하여 이전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냄.
- 유명 브랜드 매장들도 입점하여 있으며, 카페와 식당을 비롯하여 공간을 빌려주고 기간마다 전시가 바뀌는 유료 전시장도 있어 곳은 날씨와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았음. 탐방 당시에는 우주공간에 대한 전시와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관을 운영하는 중이었어서 평일 오전 시간이었음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음.
-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 근처인데다가 넓은 공원과 멀티플렉스, 스타디움이 위치한 곳에 문화·예술 공간 및 쇼핑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복합문화공간 설립으로의 목적을 위한 위치 선정부터 탁월했다고 느낌.
- 또한, 도시재생을 통해 폐건물을 활용했다는 점도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쇼핑몰들과 달리 이색적인 특징이 되어 관광 및 홍보를 위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므로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로 보임.

- 다만, 대부분의 상점이 유명 브랜드의 체인점이기 때문에 장소 자체의 특색을 제외하면 여타 쇼핑몰과의 차이점은 크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아무래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함.
- 이곳은 쇼핑몰이긴 하지만, 야외에 위치해 있고 작은 상가들이 붙어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서구의 골목형 상점가를 떠올릴 수 있었는데, 인천 내에서 골목형 상점가가 가장 많은 서구는 골목형 상점가의 발전을 위해 공동시설을 개선하고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간헐적으로 이벤트 등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데, 다른 상점가들과의 차별점이 존재하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발성에 그치는 간헐성 이벤트보다, 베르시 빌리지의 예술 공연처럼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확실한 테마를 잡아 고착시키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임.

다 사진 자료



6. 그라운드 콘트롤

폐건물과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의 성공사례

가 방문지 정보



현지 명칭	Ground Control
위 치	81, rue du Charolais 75012 Paris
개관연도	2014년
면 적	6,500m ²

- 변동사항: 우천 및 강풍으로 인하여 리브고슈 협의 개발지구 탐방이 축소되어, 연수 계획 당시 일정 문제로 포함하지 못했던 그라운드 콘트롤을 탐방하기로 함.

- 프랑스의 국유철도 회사인 SNCF가 소유하고 있던 우편 분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프랑스의 문화예술 이벤트 디자이너 La Lune Rousse와 협력하여 문화·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장소로, 파리 젊은이들의 성지로 떠오르는 곳임.
- 자체 팟캐스트 방송을 통하여 문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공유하며, 입장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음.
- 그라운드 콘트롤 내부에서 전시회, 강연, 공연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스포츠 경기 단체 관람, 바자회 등의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함.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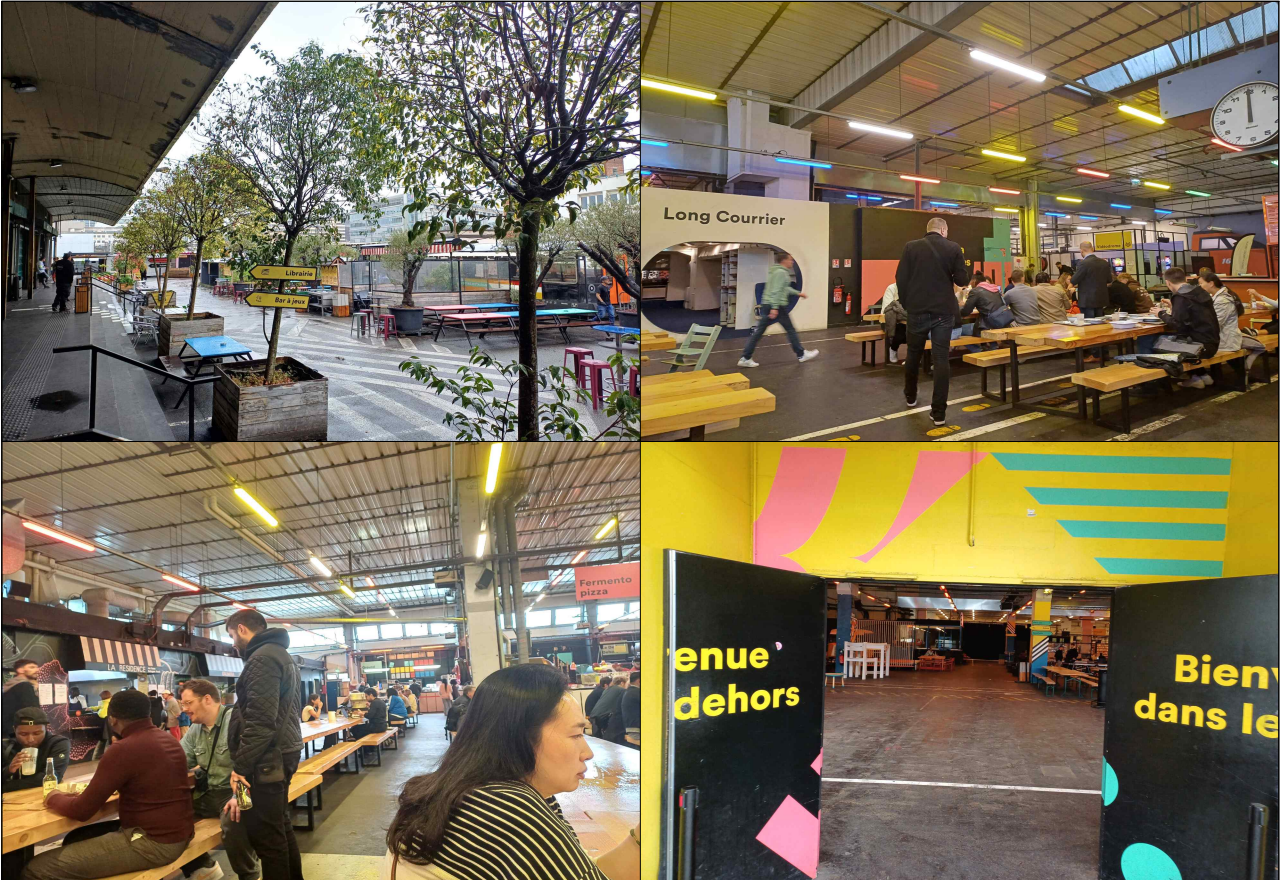
- 모두에게 열린 공간인 만큼, 그라운드 콘트롤 입장 시 철저한 짐 검사를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에 신경 썼음.
- 입구를 통해 계단을 올라가면 푸드트럭을 통해 식사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외부공간과 푸드코트·전시장·이벤트 공간·팝업 상점들이 입점해있는 내부 공간으로 나뉘어 있음.



- 푸드코트와 푸드트럭의 경우 여러 나라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시아·중동·유럽 각국 등 전 세계의 다양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구성은 2~6개월마다 달라지기도 함. 다만, 입점한 몇몇 식당은 상설인데, 그중에서도 난민 음식 식당의 경우 난민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상설 음식점으로 지정 됨.

- 입점한 푸드코트와 푸드트럭은 실제 해당 나라 국적의 요리사들로, 파리에서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함.
- 식당의 식기류는 환경을 고려하여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몇몇 식기류의 경우 보증금 정책을 활용하여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또한, 이곳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퇴비로 활용되어 쓰레기를 최소화함.
- 내부에 설치된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문화적 가치를 자체 생산·공유함. 지난 방송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방문객이 아니더라도 찾아서 들을 수 있도록 함.
- 당시 시간이 평일 점심시간이어서인지 푸드코트 이용객들이 아주 많았으며, 옆에서 실내 농구공 이벤트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아주 활기찬 분위기였음.
- 비행기의 몸통을 잘라다가 붙인 듯한 구성의 대화공간이나 디제잉 부스, 오락 시설, 네온 빛 형광등을 활용하여 꾸민 실내는 자유로우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젊은 감각을 보여줌.
- 나이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문화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서구에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는 그저 공간의 존재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적인 성향 또한 맞아야 하는 일이다 보니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 사진 자료



7. 라 데팡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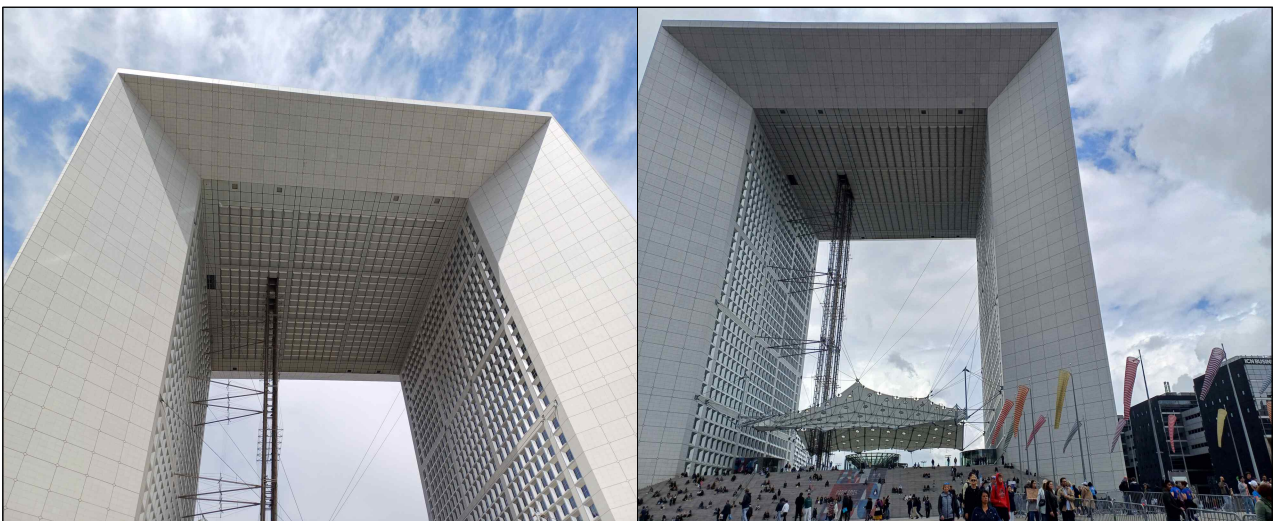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후 지상 면적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견학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관리 방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

가 방문지 정보

- 파리의 부도심 지역으로, 원래 군사시설이었던 지역을 1958년에 설립된 라데팡스 개발위원회의 개발 구상에 따라 1964년부터 1990년대까지 이루어진 재개발 신도시임.
- 루브르 박물관으로부터 콩코드 광장, 샹젤리제 거리, 에투알 개선문이 라데팡스의 상징인 신 개선문(그랑드아르슈)과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 신 개선문에서 바라보면 4km 떨어진 에투알 개선문이 보이는 구조로 만들어졌음.
-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하철, 국철 등을 비롯한 교통 노선들과 약 2만 6천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도심의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 면적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시티투어버스 정도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의 기능을 잃지 않음은 물론, 고층 빌딩으로 이루어진 도심에 조각이나 동상, 설치 미술 작품 등을 곳곳에 배치하여 문화·예술적 가치를 향상하고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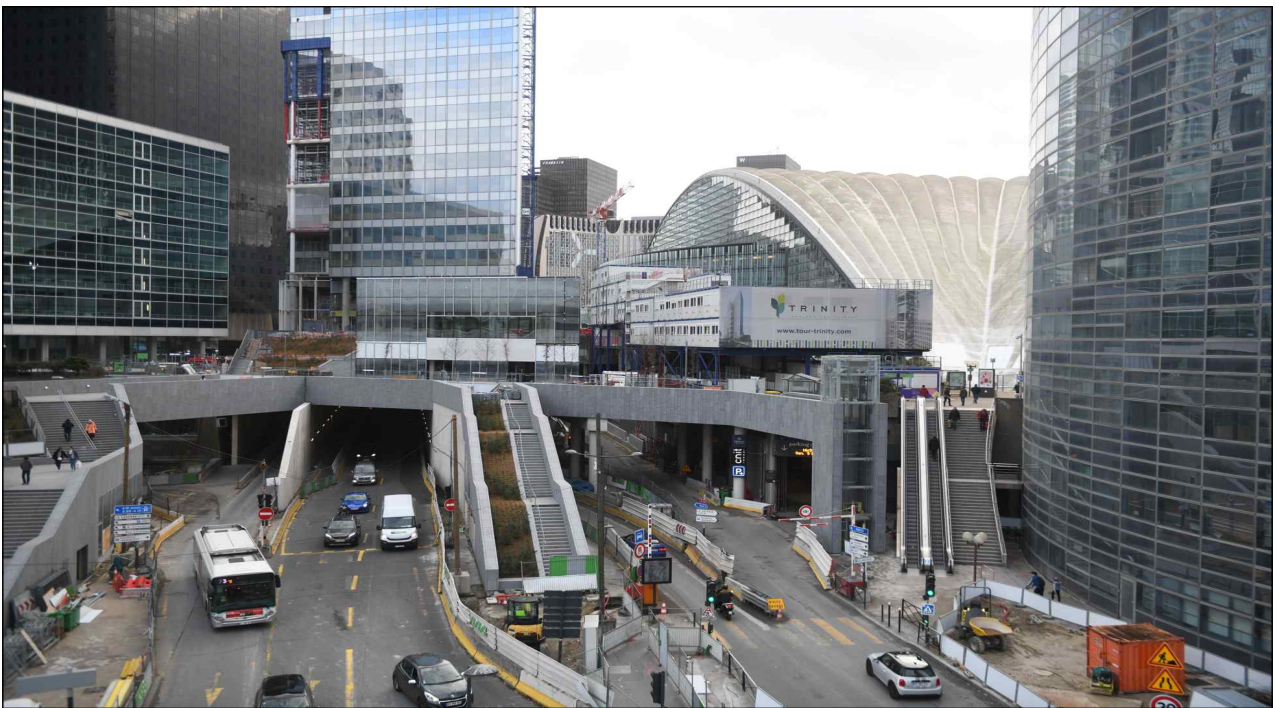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라데팡스 지구의 대외홍보 담당자분으로부터 신 개선문의 하단부 계단에서부터 시작하여 라데팡스 지구의 재개발 역사 및 과정, 그리고 주변부의 건축물과 설치 미술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직접 견학할 수 있었음.
- 신 개선문은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건설된 건축물로, 1982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미테랑이 주최한 국립 디자인 경연에서 우승한 덴마크 건축가의 설계도를 따라 1985년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1989년에 완공함.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10m의 정육면체 형태이며 총 36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건물 내부는 식당, 전시장, 회의장,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어 라데팡스 지구와 파리시의 전망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라데팡스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라고 함.



라데팡스의 랜드마크인 신 개선문

- 하지만 무엇보다 라데팡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는 포인트는 보행로와 도로가 분리된 구조인 이중 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으로, 모든 교통시설을 지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 1층에는 고속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을 배치하였고 지하 2층에는 지하철, 지하 3층에는 교외철도인 RER노선을 배치하여 상부 지상 구조의 교통 혼잡성을 크게 줄이고, 보행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간의 활용성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었다고 함.



라데팡스의 인공지반 아래로 들어서는 차도

-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곳곳에서 재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줬던 설치 미술 작품의 경우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로는 신 개선문의 앞쪽으로 여러 개의 기둥 위에 잠자리채처럼 생긴

다양한 색깔의 천이 매달려 있는 설치물이 있었는데 풍향을 알려주는 설치 미술이라고 하며, 그 뒤쪽으로 거대한 엄지손가락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César라는 작가의 유명한 작품으로, 원래는 40cm에 불과한 작품이고 전 세계 여러 곳에 다양한 크기로 설치되어 있지만, 라데팡스 지구에서만 독점적으로 12m 높이에 달하는 동상으로 세웠다고 함.



César 작가의 작품인 Le Pouce

- 이 외에도 뒤집어진 자동차 조형물, 각종 화려한 벽화들 등 다채로운 조형물들과 조각품으로 도시 전체가 공원을 겸하는 업무 지구 겸 상업 지구로 느껴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음.
- 2027년 착공을 준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은 19.3km

정도의 직선 구간으로, 라데팡스에 비하면 면적도 좁고 고속도로만 지하로 내리고 지상은 일반도로로 이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라데팡스처럼 광활하진 않음. 현재는 녹지 및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인데, 라데팡스처럼 조각 예술품이나 설치 미술 등을 활용하여 도심 속 거리 미술관으로 조성하여 관광지로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공연장을 설치하여 외부 기관의 대관 및 지자체의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음.

다 사진 자료



8. 파리 올림픽 경기장 설치 현장

다가오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준비하는 프랑스의 방안 중 하나로, 파리의 대표적인 문화 유산을 활용하여 임시 경기장을 설치하는 현장 방문

가 방문지 정보

- 콩코드 광장 임시 경기장: 파리에서 가장 넓은 광장이자,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의 중심지로 활용된 광장으로, 파리시의 상징적인 광장들 중 하나이기도 함.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BMX 프리스타일, 브레이크댄스, 3대 3 농구, 스케이트보드 등의 종목을 위한 임시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
- 알렉상드르 3세 다리: 마라톤 수영이 열릴 예정인 곳으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보자르 건축 양식의 다리.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히는 관광 명소.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문화유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 효과 및 도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경기장 건설로 인한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환경 보호와 예산 절감까지 꾀하고 있음.
- 임시 관객석을 설치하여 경기장 건설비용을 크게 아끼는 한편 설치 시설은 분리 후 재사용도 가능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비용 절감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며 경기장 건설 시 따라오는 관리 비용과 철거 등의 문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또한, 설치 시설은 초기 제작 시 다목적 용도로 계획하여 제작한다면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대여해주거나 지원해주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서구에는 2014년 인천 아시아 게임을 위해 4천 700억 원을 들여 설립한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있으나, 일부 공연, 체육 행사를 제외하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연평균 24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음.
- 뚜렷하고 확실한 활용 계획 없이 큰 자본을 들여 설립한 후 방치하여 애물단지로 전락시키는 것보다, 차후에는 경기 종목에 따라 가능한 한 조립식 형태의 임시 경기장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 사진 자료



9. 바토무슈

자연환경과 지역 유산을 결합하여 성공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한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하여 서구에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함.

가 방문지 정보



현지 명칭	Bateaux Mouches
위 치	Port de la Conférence, 75008 Paris
설립연도	19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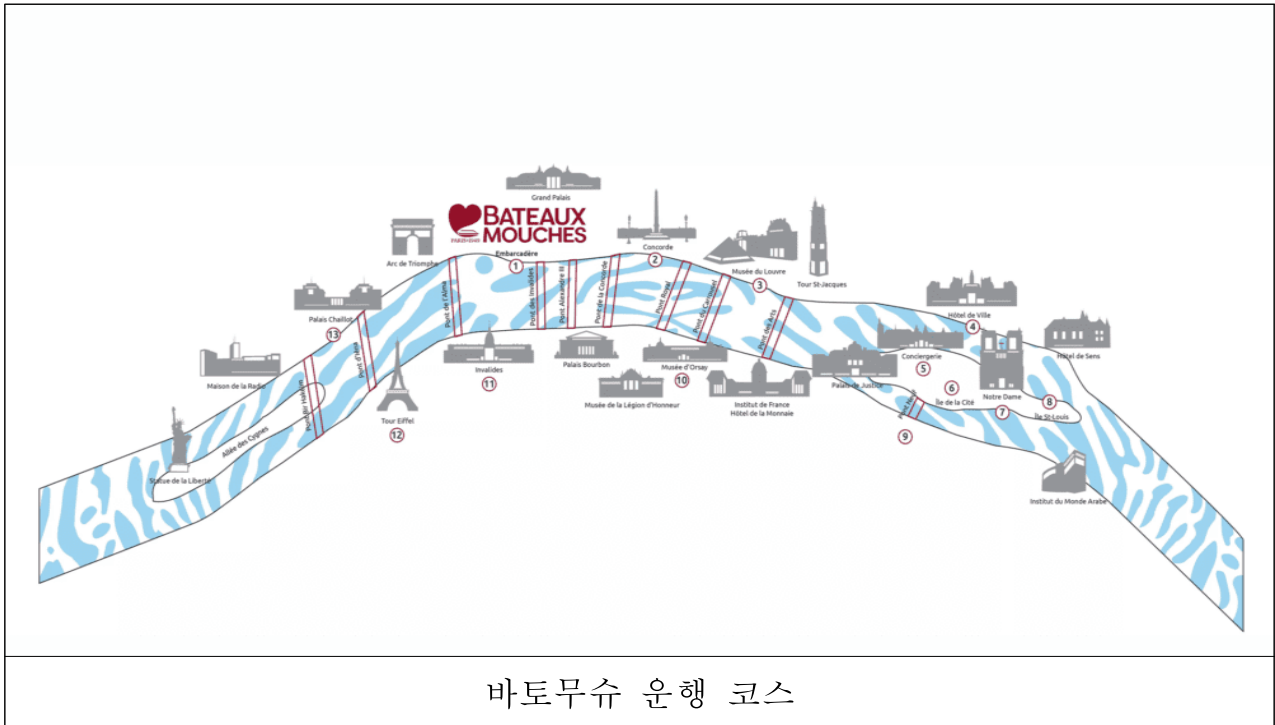
- 변동사항: 당초 파리 근교의 스마트시티인 ‘이시레몰리노’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라데팡스 지구를 방문하는 데에 소요한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이후 브뤼셀로 이동하는 일정을 맞

추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 이를 대신하여 파리 시내의 센 강을 돌며 파리의 주요 문화유산들을 돌아볼 수 있는 바토무슈 유람선을 이용하면서 지형지물을 활용한 문화유산 관광 상품 개발과 아라뱃길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함.

- 센 강을 따라 한 바퀴 돌며 강변에 모여있는 파리의 주요 문화 유산을 설명해주는 시티투어 유람선으로, 1867년에 파리 세계 박람회를 위해 관람객들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시작하여 대성공을 거두었고 파리를 상징하는 운송 수단으로 활용됨.
- 1950년이 되어서야 장 브루엘이라는 사업가가 바토무슈 컴퍼니 회사를 설립하여 단순 운송 목적이 아닌 현재의 관광 유람선 목적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음.
- 파리를 대표하는 관광 크루즈이며, 크루즈의 종류에 따라 센 강의 경치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품이나 공연을 볼 수 있는 상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행되고 있음.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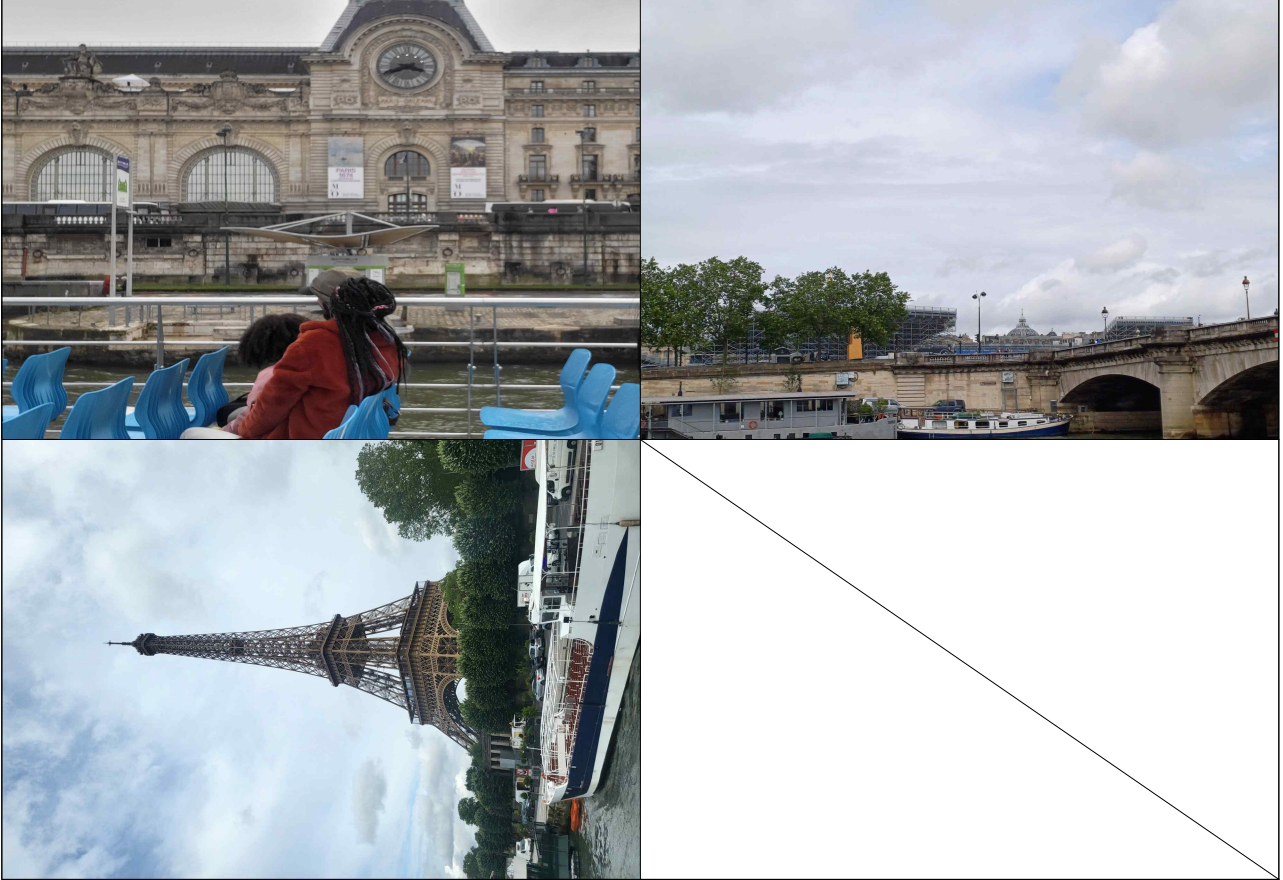
- 선착장에는 크루즈 이용 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대기 장소 겸 기념품 가게가 운영되고 있었음.
- 운행은 성수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30분마다, 비성수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45분마다 한 대씩 운행되고 있음.
- 바토무슈는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운행되는 유람선으로, 실내인 1층과 실외인 2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2층의 경우 지붕이 없어 우천 시에는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알마 다리 근처에 있는 전용 선착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시테섬을 한바퀴 돌아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는데, 선착장 - 콩코드 광장 - 루브르 박물관 - 파리 시청 - 콩시에르주리 - 시테섬 - 노트르담 대성당 - 생 루이섬 - 아랍 세계 연구소 - 퐁뇌프 다리 - 오르세 미술관 - 앵발리드 - 에펠탑 - 샤흐요 궁 - 선착장 순으로 운행됨.



- 각 명소를 지날 때마다 한국어를 포함한 7개 국어의 안내 방송이 차례로 흘러나와 명소의 역사와 특징을 간단히 알려주어 짧은 시간 안에 파리의 역사를 훑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 서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기업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경인 아라뱃길 크루즈가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런치, 디너, 공연, 불꽃놀이 크루즈로 바토무슈와 비슷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크루즈 상품으로 운영 중임. 하지만 아무래도 코스 주변에 관광 명소가 적다 보니 콘텐츠가 마술쇼나 외국인 무용수들 등 선내 공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지역 특색이나 차별점을 찾기는 어려움.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서곶들 노래·인천 아리랑 등의 서구의 무형문화재 공연을 함께하면 서구의

전통문화 홍보 및 보전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

다 사진 자료





벨기에

1. 유럽 연합 의회

가. 방문지 정보	73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75
다. 사진 자료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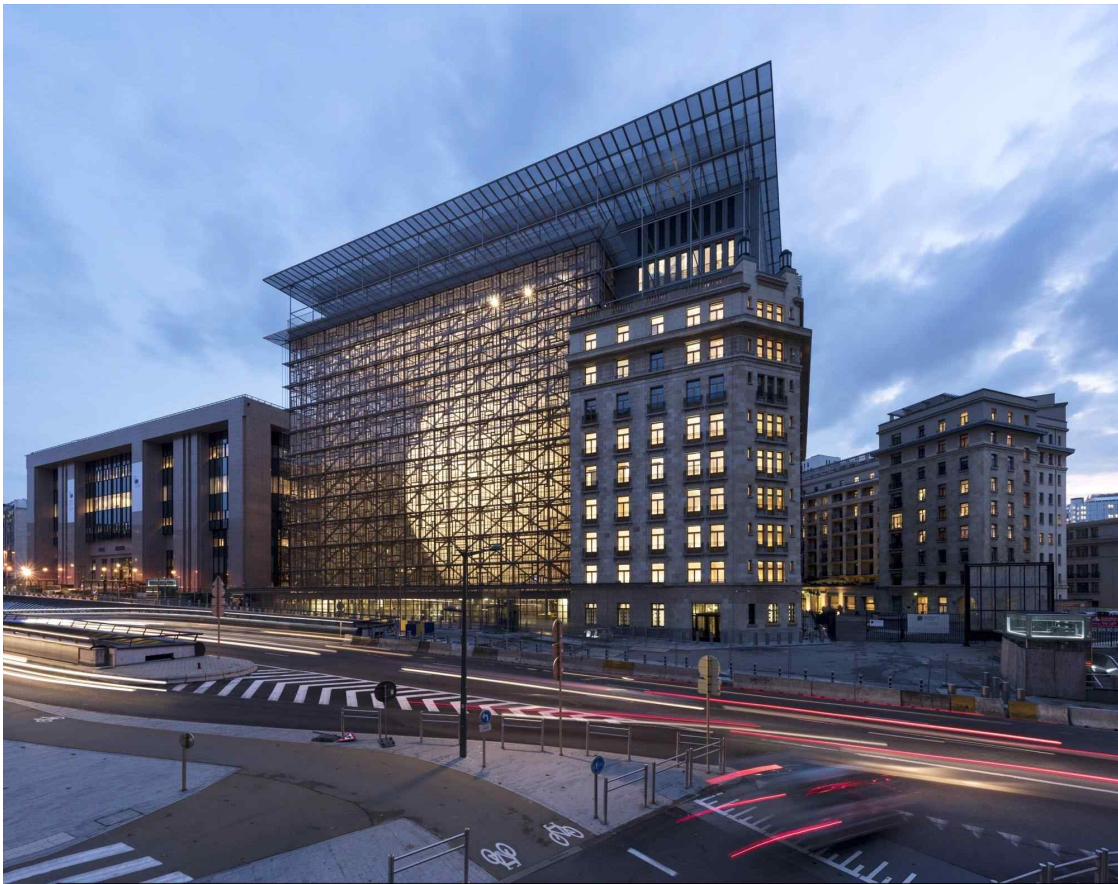
2. 브뤼셀 시청사

가. 방문지 정보	82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84
다. 사진 자료	88

1. 유럽 연합 이사회

선진 의회의 의사결정 진행 시스템을 생생하게 느껴보고, 국제 정세의 흐름과 견문을 넓히기 위함.

가 방문지 정보



현지 명칭	European Council (EUCO)
위 치	Rue de la Loi / Wetstraat 155 1040 City of Brussels, Brussels-Capital Region
설립연도	1958년
면 적	70,646 m ²

- 유럽 연합은 1967년 유럽경제 공동체로 시작하여 1993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유럽국가들의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연합체인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본부임. 현재 27개국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음.
-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는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의회 또한 제1의사당으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루이즈 바이스 빌딩에, 제2의사당으로 벨기에 브뤼셀의 유로파 빌딩에 위치해 있음. 이와 별도로 의회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6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선거를 통해 총 720명의 10대 유럽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었으며, 22개의 상임위로 이루어져 운용되고 있음.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2017년부터 오픈한 유로파 빌딩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럽 연합 이 사회의 대외 언론 홍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의사 결정 과정과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장소를 직접 견학하게 됨.
- 총 두 개의 건물을 관람하게 되는데, Justus Lipsius 빌딩과 유로파 빌딩을 주로 볼 수 있었음.
- 두 건물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두 개의 연결복도로 서로 이어져 있으며, 2017년 유로파 건물을 이용하기 이전까지는 Justus Lipsius 빌딩에서 의회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2017년부터 Justus Lipsius 빌딩은 보조 건축물로 이용하며 두 건물을 나누어서 함께 이용 중임.



Justus Lipsius 빌딩의 모습

- 유로파 빌딩 안쪽에 있는 유럽 연합 이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모양으로 생긴 등불 모양의 구조물로부터 안내가 시작되었는데, 그냥 구조물이 아니라 안에 회의실이 갖춰진 업무공간으로 이용되는 장소로 독특한 형태가 인상적이었음.
- 공간 활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등불 형태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 건물 인근에 있는 철도 터널 때문에 건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 설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았고, 이 때문에 최대한 이용 면적을 확보하면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디자인적인 면도 만족할 수 있는 등불 형태를 선택했다고 함.



유로파 건물의 상징인 등불 모양의 업무 공간



유로파 빌딩의 단면도

- 또한 이 등불 형태의 업무공간을 감싸고 있는 건물 외관은 유럽 전역의 철거 현장에서 회수한 오크 창틀을 손질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에 넣는 방식으로 재활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함.
- 건축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효율과 의미, 랜드마크로의 상징성과 상품성을 모두 잡은 우수 사례로 보임.



유럽 연합 이사회의 본회의장

- 매년 3월, 6월, 10월, 12월에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각국 대표 의원들이 모이는 가장 큰 본회의장에는 각국의 언어를 통역해줄 통역사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말하는 의원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며 해당 의원의 비꼬는 표현이나 농담 등도 의도를 살려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원형으로 생긴 회의 공간의 정중앙에는 사방으로 설치된 모니터가 있음.
- 의원들은 원형으로 이루어진 정중앙의 탁상에 자리하고, 그 바로 뒤에는 해당 회의 주제의 전문가들이 자리하여 의원들을 지원함. 통역사들은 각 의원의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통역실로 들어가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게 됨.
- 본회의장에서는 유럽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들을 수 있었는데, 유럽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채택에 반대

하는 회원국 없이 합의에 의해 결정하지만, EU 조약에 규정된 몇몇 특정 사례에서는 투표로 결정한다고 함. 주어진 안전에 대한 표결은 이사회의 회장이 개시하게 됨. 투표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만장일치와 적격 과반수, 단순 과반수가 있음. 투표로 결정하려면 회원국의 3분의 2가 출석하는 정족수가 필요하며, 대리는 불가함.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이나 집행위원회 의장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회의 간 긴급 사안의 발생 시 의장이 이 절차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는 경우 서면 투표로 갈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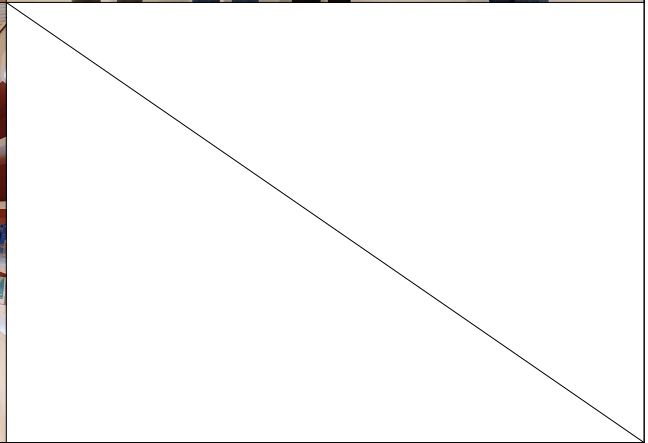
- 본회의장을 보면서, 유럽연합 이사회라고 해서 굉장히 성대하고 화려할 줄 알았으나 회의실의 인테리어는 물론 가구나 명패 등의 집기가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해서, 권위적인 느낌이 전혀 없고 실용적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음.
- 다만 회의장의 천장과 바닥의 디자인만큼은 다양하고 썩한 색감의 다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는 벨기에의 화가 조르주 피랑의 작품으로, 유럽국가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 간의 상호 작용을 상징한다고 하며 회의장뿐만 아니라 유로파 빌딩의 곳곳을 장식하고 있음.
- 건물 사이 연결복도를 이용하여 Justus Lipsius 빌딩으로 이동하여 언론사들의 대기 장소 및 의원 입장 구역으로 향함.
- 언론사 대기 장소와 포토월은 이어져 있으며, 각 국가의 의원들

이 레드카펫으로 입장할 때마다 포토월의 국기가 바뀌고, 발언대도 옆에 갖추고 있어 발언을 하는 것도 가능함.

□ 마지막 장소는 방문객을 위한 장소로, 누구나 들어와서 유럽 연합 이사회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자와 영상 매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박물관 겸 휴식 공간 같은 느낌으로, 가상 포토월을 만들어 기념 촬영을 한 후 실시간으로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음.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고 함. 이곳에서 오늘의 방문 일정을 함께 한 사람들과 즉석에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부탄의 전 국회의원 겸 여배우로 활동 중인 Lhaki Dolma, 일본의 지구환경전략연구소에서 정책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Alice Yamabe, 캐나다 외무부의 안보 정책 분석가인 Daniela Figueroa와 함께 최근 북한과 대한민국의 보안 이슈, 국제적인 환경 이슈와 저탄소 정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명함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음.

□ 이와 비슷하게 서구의회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대상을 좀 더 넓혀서 학생뿐만 아니라 신청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국민들을 초대하여 구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 국민들과의 소통 방식 등을 직접 견학과 함께 안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국민들의 구정 활동 참여율과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듯함.

다 사진 자료



2. 브뤼셀 시청사

지역 유산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벤치마킹

가 방문지 정보



현지 명칭	Hôtel de Ville de Bruxelles / Stadhuis van Brussel
위 치	Rue de l' Almigo 2, 1000 Brussels
설립연도	1455년 완공, 1860년 재건
면 적	6,500m ²

- 브뤼셀의 랜드마크인 브뤼셀 시청사는 1401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하여 1455년에 완공되었으며, 그랑플라스라고 불리는 브뤼셀의

중앙 광장 남쪽에 위치해 있음. 그랑플라스 광장은 브뤼셀의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 광장으로서, 브뤼셀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임.

-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그랑플라스 광장에 있는 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세 건축물로 브라반트 고딕 양식의 건축물 중 대작이라고 손꼽히는 건축물임.
- 9년전쟁 중이던 1695년에 프랑스의 공격으로 인한 화재로 걸면 일부를 제외하고 전소되었으나, 1840년에 재건을 시작하여 1860년대에 들어서야 완료되었음.
- 재건 과정에서 건물 외관와 내부 인테리어에 17세기와 18세기의 예술 양식이 더해졌기 때문에 당시 예술 양식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도 사용됨.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브뤼셀 시청사는 현재에도 시청으로 사용되는 건물이기때문에, 관광 목적의 방문은 평일에는 저녁 시간에만 개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오전 오후는 물론 평일에는 볼 수 없었던 공간을 개방하여 파노라마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2024년 4월 전까지는 가이드가 직접 관광객들을 인솔하고 안내 하였으나, 4월부터는 목걸이형 오디오-비주얼 가이드 기기를 통해 관광객들이 각자 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바뀌었음.
- 가이드 기기는 터치스크린 화면과 함께 오디오로 제공되며, 남학생과 여학생 캐릭터가 시청사 내부를 거닐며 나누는 대화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음.
- 다만, 현재에도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보니 실시간으로 관람 가능 여부가 바뀌기도 하는 불편함은 존재했음.
- 시청사 내부에는 기증·선물·구매를 통하여 시청사의 소장품이 된 수십 점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시의회 의원실, 역사 전시장, 결혼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에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들이 있음.
- 실제로 당일에도 시민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중이었으며, 시청사에서의 결혼 비용은 오전 시간대에 기본적인 행사로는 50유로(한화 약 7만 5천 원, 총 15분 진행), 오후 시간대로 발코니에서의 기념사진 촬영 및 인사를 추가하면 300유로(한화 약 45만 원,

총 20분 진행)로, 세계문화유산에서 치르는 결혼 행사임에도 아주 저렴하게 진행됨.



브뤼셀 시청사 건물에서 결혼식을 진행 중인 모습

- 최근 공공 예식장에 대한 수요와 논의가 많이 나오면서 서울시의 경우 공공시설 대관을 무료로 해주면서 비품 운영비도 지원해주는 등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구도 인천시의 ‘작은 결혼식’ 사업을 위한 예식장으로 창해 문화공원·아라뱃길 매화 동산·청라호수공원의 청라루와 음악분수를 무료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소가 공원들 뿐이어서 한정적이고, 이용조건이 그늘막 설치나 음향 장비사용이 금지되는 등 한정적이라 아쉬움이 있음. 실내인데다가

비품이 지원되는 곳이 추가된다면 구민들의 결혼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적게나마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음.

- 인천시 중구의 경우 브뤼셀 시청사처럼 중구청과 인근 건물들, 그리고 주변의 조계지 건물들을 엮어 ‘인천야행’이라는 이름의 가이드 도보 투어로 매년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다만, 이 점은 조계지라는 중구의 역사적 특징과 지역적 특색이 스토리텔링에 적합하다는 면에서 특징적인 사례임.
- 서구의 지역 유산으로는 검단 대곡동 고인돌, 경서동 녹청자 가마터, 명문가 묘역 및 신도비, 천연기념물인 신현동 회화나무 등이 있는데, 유산들 모두 각각 선사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담고는 있지만 위치가 서로 많이 떨어져 있어 하나로 묶어서 풀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임.
- 다만 검단 선사시대 박물관의 경우 현재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박물관이 2026년에 개관되면 통합·이전될 예정이고, 해당 박물관에서의 홍보 전략으로 각 시대의 유산들을 엮어 서구 전체의 지역 유산을 다룬다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 보이며, 이를 통해 ‘서구 역사 스탬프 투어’ 등을 기획하여 각 지역 유산 장소마다 스탬프를 마련하고 스탬프를 모두 모은 관광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도 연계할 수 있어 보임.
- 또한 신현동 회화나무의 경우, 인천 서구문화원의 ‘자연유산 민

속행사'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5월 28일마다 회화나무 당제를
열며 지역행사로 발돋움하는 중이지만 아직은 더욱 적극적인 홍
보가 필요해 보임.

다 사진 자료





네덜란드

1. 이준 열사 기념관		
가. 방문지 정보	90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93
다. 사진 자료	94
2. 하우스텐보스		
가. 방문지 정보	95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97
다. 사진 자료	100
3. NDSM		
가. 방문지 정보	101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103
다. 사진 자료	107
4. 잔세스한스		
가. 방문지 정보	108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110
다. 사진 자료	112
5. 프레드릭 헨드릭플렌소엔 놀이터		
가. 방문지 정보	113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114
다. 사진 자료	115
6. 암스테르담 도심 및 운하		
가. 방문지 정보	116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118
다. 사진 자료	121

1. 이준 열사 기념관

애국정신과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한 기관 방문

가 방문지 정보



현지 명칭	Yi Jun Peace Museum
위 치	Wagenstraat 124A, 2512BA The Hague(Den Haag)
개관연도	1995년

- 을사늑약의 무효를 세계에 알려 당시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던 만국평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

석하였으나, 안타깝게 실패하고 헤이그의 숙소에서 순국하신 이준 열사를 기리는 기념관.

- 이준 열사 기념관은 1907년 7월 14일 당시 이준 열사가 순국하신 숙소 현장을 박물관처럼 꾸며둔 곳으로, 유럽에 단 하나뿐인 항일 독립운동유적지로서, 1995년 8월 5일 개관함.
- 1620년에 지어져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이용되기 이전까지 370년간 상가·호텔·극장·당구장·가정집 등으로 이용되어 온 아주 오래된 건물이기도 함.



- 박물관은 강연장 혹은 행사 진행용 무대로 쓰일 수 있는 무대와
간의의자 객석으로 이루어진 1층을 포함하여 총 3층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준 열사의 흉상과 다양한 언론 자료는 물론 방에
머물렀을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해 두었음.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박물관은 2층에서 시작하여 3층으로 이어지는데, 헤이그 특사 파견의 배경과 이동으로 시작하여 활동 내용과 특사 각각의 일대기와 언론 자료를 모아놓은 전시실, 그리고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된 호텔 방 현장 등으로 이어져 있어,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기는 쉬웠으며,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 견학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방문객들이 커다란 테이블에 앉아 방명록처럼 테이블보에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많은 한국인이 방문하여 추모 메시지를 남겨 전시된 내용들만큼이나 뜻깊은 공간이었음.
- 다만, 뜻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품목 자체의 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준 열사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이순신, 정몽주 등의 인물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1층이라든지, 전시품보다는 현수막이나 스티커, 인쇄물만이 전시된 자료실 등, 장소가 꽤 널찍하게 확보된 만큼 조금 더 전시의 질에 신경 쓴다면 기념관이자 전시관으로서의 모습을 더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다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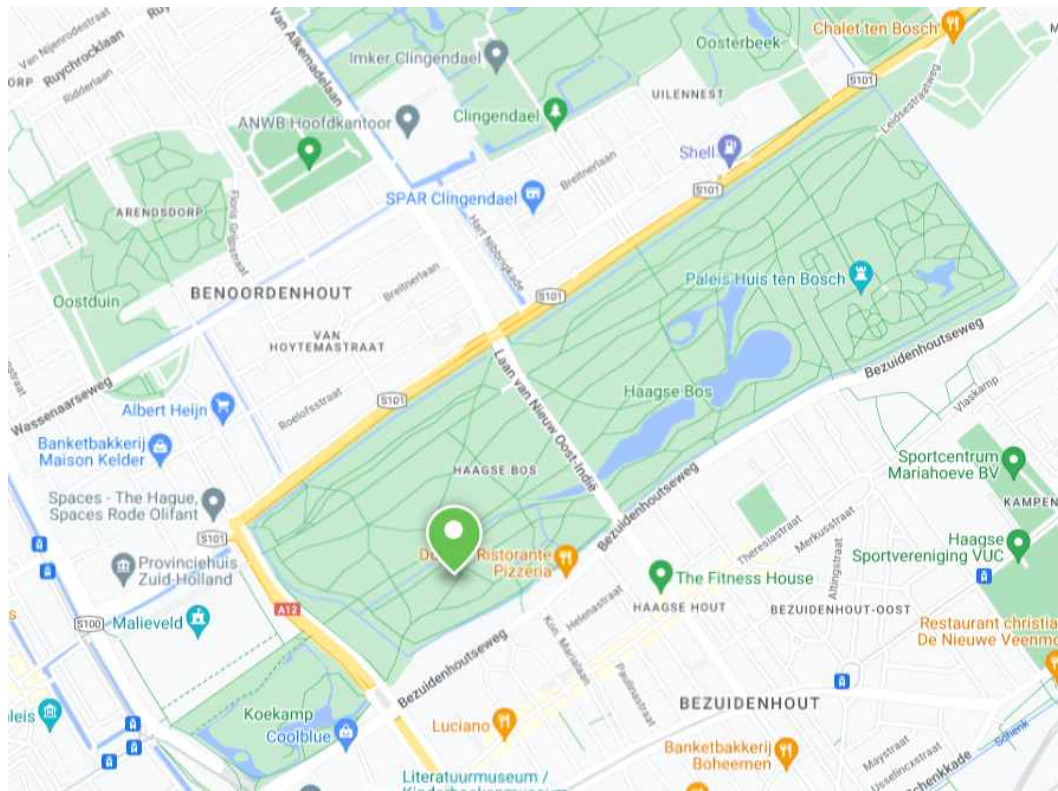


2. 헤이그 숲 (하우스 텐보스)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모색 및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모색

가 방문지 정보

지도



현지 명칭	Haagse Bos
위 치	Boslaan 12, 2594 NB Den Haag
면 적	1.28 km ² (땅 1.17 km ² , 호수 0.11 km ²)

- 헤이그 숲은 헤이그 중심부에 위치한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숲으로, 16세기에 수없이 행해진 벌목을 1576년부터 법으로 금지하여 숲의 나무를 베고 팔 수 없도록 했으며 덕분에 숲을 보존할 수 있었음.
- 1899년 네덜란드 국립산림청이 헤이그 숲을 소유·관리해왔으며 1906년에 일반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였음.
- 0.11 km²의 인공호수를 지니고 있으며, 네덜란드 왕가가 1981년부터 사용해온 하우스텐보스 궁전이 위치한 숲이기도 함.
- 하우스텐보스 궁전은 경비병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헤이그 숲은 누구나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으며 자연을 해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숲길 곳곳에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음.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변동사항: 본래 스타트업 빌리지를 방문하여 스타트업 육성 방안 모색과 함께 주변 사이언스 파크를 돌며 인프라를 탐방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기관의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되어 당시 준비 중이었던 무장애 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안 조례를 위한 참고 자료 수집 목적 및 관내 수변 공간과 녹지 공간의 활용 방안 모색에 참고하고자 헤이그 숲 공원을 방문하기로 함.
- 도심 중앙에 있는 숲임에도, 야생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울창하고 조용한 곳으로, 시민들의 휴양과 여가를 위한 이상적인 공간이었음.
- 헤이그 숲은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벤치 등의 기본적인 조형물 외에는 별다른 설치물이 없었으며, 생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들을 위한 식수대 등이 틈틈이 설치되어 있었음.
- 이 덕분에 다람쥐, 오리, 백조 등 야생동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인기척에도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아 현지인들과 잘 어우러져 공생하는 듯이 보였음.
- 숲이 넓은 데다가 산책로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놓아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반려동물과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음.
- 인공호수는 0.11km²로, 0.24km²인 청라호수공원의 호수의 절반

정도의 면적으로, 숲의 중앙에 길게 위치해 있어 호수를 따라 돌며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서구는 최근 청라, 석남 일대에 14만㎡의 대규모 도시 숲을 완성하여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공원이나 녹지 등 친환경적인 요소가 도시 면적에 비하면 부족한 편이며, 주민의 편의를 우선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자 공원이다 보니 자연적으로 발생한 숲과는 울창함이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있음.



헤이그 숲의 인공호수

- 이곳의 숲 놀이터(Het Huttenbos)가 인상적이었는데, 별다른 기구 설치 없이 동물들의 형상이 조각되어있는 통나무와 고목 그루터기, 나뭇가지 등 자연물로만 이루어진 놀이터로, 자연 생태

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의 상상력만으로도 훌륭한 놀이 시설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음.



헤이그 숲의 숲 놀이터

- 서구에서도 가원유아숲체험원, 청라노을공원 유아숲체험원, 가좌이음숲 유아숲체험원 등등 공원 내에 아이들을 위한 숲 놀이터를 조성하고는 있으나, 이곳에 비하면 기구 설치가 병행되거나 많이 다듬어진 형태의 놀이터들이기에 서구의 숲 놀이터에 비해 조금 더 이색적으로 느껴졌음. 다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인공적이라고 하더라도 후가공을 통하여 다듬어진 기구들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장단점이 있어 보임.

다 사진 자료



3. NDSM

슬럼화된 폐조선소 단지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목적

가 방문지 정보



현지 명칭	NDSM
위 치	NDSM Kade 8, 1033 WW Amsterdam
면 적	900,000m ²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대형 복합 문화·예술 단지로, 과거에 조선소로 사용되었으나,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 1980년대에 폐업하고, 불법 거주자들이 모여 살면서 슬럼가로 변모하게 됨. 이후 도시재생을 통해 현재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됨.
- 199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 창작자, 문화 기업가들이 동참하여 공장 폐건물과 크레인들을 개조하여 스튜디오, 작업 공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 NDSM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지원하고, 전시회와 퍼포먼스를 개최하기도 함. 또한 버스킹을 비롯한 거리 예술, 뮤지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여 시민들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성지가 됨.
- NDSM은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을 키워드로 삼는 만큼 트리하우스, 크레인 호텔, 설치 미술 작품 등 명소들이 주변에 산재해있어 독특한 볼거리를 많이 지닌 덕분에 관광지로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장소임.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NDSM은 과거 조선소였기에 항구와 맞닿아 있어서 암스테르담 도심과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공간으로, 차량이나 도보로도 물론 접근할 수 있지만, 배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했음. 암스테르담 중앙역 근처 선박 터미널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1시 45분까지 매시간 당 2~4회 운항하며, 15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음. 주말에는 새벽 3시까지 운항하기도 함. 또한, 도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편의성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이어서 관광 코스로 인기임.
- NDSM은 거대한 문화예술단지로서, 다양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설치 미술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는데 그중 주요 건물들은 조선소 창고로 쓰였던 NDSM Loods, 공업용 크레인을 호화 호텔로 탈바꿈시킨 Faralda Crane 호텔, 배르 그래피티로 대표되는 거리 예술을 전시하는 STRAAT 미술관, 예술가들을 육성하는 Treehouse NDSM 등이 있음.
- 먼저 NDSM Loods는 현재 NDSM의 중심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대한 건물 안에 들어서면 여러 개성 넘치는 컨테이너들이 중앙에 정렬하여 위치해 있고, 각각의 컨테이너는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로서 창작 및 전시 공간으로 사용됨.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사업가들과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음. 그리고 NDSM Loods의 내

부에는 IJver이라는 식당과 NDSM Fuse라는 모임 및 행사, 전시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대관이 가능한 곳이기도 함. NDSM Loods는 입장이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예술 애호가들이나 관광객이 제일 먼저 찾는 장소이기도 함.



NDSM Loods의 내부 구성도

- ‘안네의 일기’의 주인공 안네 프랑크의 대형 초상으로 많이 알려진 길거리 예술 미술관인 STRATT 미술관은 유료 미술관으로, 그래피티를 위주로 약 180명의 길거리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가득한 공간임. 건물 외관 또한 유명인들의 초상들과 화려한 작품들로 꾸며져 있어 볼거리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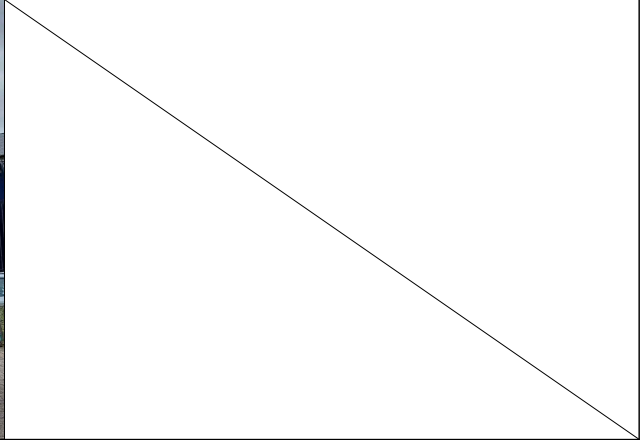
NDSM STRAAT 미술관 전경 및 내부

- NDSM의 중앙 광장 외곽에는 알록달록한 파스텔톤의 컨테이너들이 모여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곳은 버려진 컨테이너들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Treehouse라는 예술가 육성 공간으로 각종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 무대, 작업실,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수차례의 정기 공연 및 전시, 협업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직접 만든 수제 예술 공예품을 판매하기도 하는 곳임. 각종 워크샵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 지원하기도 함.
- NDSM 광장에서는 방대한 면적과 문화예술 단지라는 상징성, 그리고 높은 접근성 덕분에 각종 음악 축제, 경연대회 등이 벌어지기도 하며, 아이할렌(IJ Hallen)이라고 하는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유료 입장 벼룩시장도 매달 1~2회 이곳 NDSM 광장에서 개최된다고 함.
- 우리 서구에는 이곳과 비슷한 예로 가좌동에 있는 코스모40이라

는 카페가 있음. 버려진 폐화학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어 운영하는 곳으로, 전시 공간, 카페, 베이커리, 공연 공간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층별로 나누어 한 건물 내에서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 부평구에도 철강 공장을 카페로 바꾼 곳이 있는데, 독특한 분위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관광지로도 발전하는 등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
- 르 생카트르와 스테이션 F, NDSM 등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폐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침체되었던 도시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환기할 수도 있음.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전면 철거 및 재건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맞추어 폐건물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독특한 분위기와 스토리텔링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됨.

다 사진 자료



4. 잔세스한스

지역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가 방문지 정보



현지 명칭	Zaanse Schans
위 치	Schansend 1, 1509 AW Zaandam
면 적	350,000m ²

- 네덜란드 노르트홀란드주 잔담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풍차마을로도 유명한 장소임. 과거 18세기에는 제지·코코아파우더·염료·섬유·밀가루 생산을 위해 700개가 넘는 풍차가 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기계화로 인해 관광용으로 남겨진 10개 미만의 풍차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는 마치 민속촌이나 테마파크 같이 조성된 마을로, 아름다운 주변 풍경과 함께 잔세스한스의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들을 둘러볼 수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는 곳임.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잔세스한스는 한 해에 수백만 명이 다녀갈 만큼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암스테르담 중앙에서 차로는 약 30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곳임.
-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마을 입구에 있는 잔스 박물관이나 내부의 풍차 박물관, 치즈 박물관 등 몇몇 구간은 입장료가 필요한 곳으로, 이러한 유료 시설들을 통합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잔세스한스 패스’ 등을 판매하고 있었음.
- 입장하면 푸른 들판과 풍차, 호수가 함께 펼쳐지는데, 아름답고 여유로운 전원의 풍경과 전통적인 네덜란드의 생활 모습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모습을 보임.
- 이곳에 남아있는 8개의 풍차는 2개만 빼고는 모두 외부에서 분리하여 옮겨 재설치한 것으로,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풍차들도 존재함. 또한, 페인트, 오일, 양념 등과 같은 생산품들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었음.
- 잔세스한스 내부에는 나막신 가게와 치즈 가게 등 네덜란드 전통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냥 가게가 아니라 전통 방식의 제조과정과 그 역사를 담은 간단한 박물관을 함께 겸하고 있었음.



잔세스한스의 지도

- 또한, 잔세스한스를 구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배를 타고 호수를 돌아다니며 구경할 수 있는 보트투어 프로그램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호수 반대편까지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듯함.

다 사진 자료



5. 프레드릭 헨드릭플랜소엔 놀이터

아동 친화 도시인 서구의 놀이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네덜란드의 놀이터 문화와 유형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함.

가 방문지 정보



현지 명칭	Frederik Hendrikplantsoen
위 치	Nassaukade 66ST, 1052 CR Amsterdam
면 적	32,000m ²

- 1886년 조성된 소규모 공원인 프레드릭 헨드릭플랜소엔 공원에 위치한 이 놀이터는 2012년 시작된 공원 재개발 계획으로 Carve 라는 건축사를 통해 설계되었으며 2015년 완공되었음.
- 공원의 규모가 넓지 않은 만큼, 녹지공간을 최대화하면서도 보행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놀이공간을 공중으로 옮겨 제작하였으며, 버팀목 아랫부분에는 해먹과 그네 등을 달아 휴식 및 놀이 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함.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현재 서구 어린이 놀이터 환경 개선에 관심을 두고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놀이터들을 참고 자료로 수집하고 있는데, 헤이그 숲의 숲 놀이터와 프레드릭 헨드릭플랜소엔 놀이터는 각자의 컨셉에 충실하다고 느껴짐.
- 숲 놀이터는 숲이라는 환경에 맞게 자연 친화적이고 별다른 기구의 설치 없이 소박하게 꾸며진 반면 프레드릭 헨드릭플랜소엔 놀이터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현대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조를 선택하여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줌.
- 좁은 공간의 공원임에도 놀이공간을 공중으로 한 덕에 공간 차지가 확연히 줄어들어 공간의 활용성도 높이고, 놀이시설이 사방이 막힌 터널 형태로 건축되어 공중에서도 떨어질 염려 없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과 흥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놀이터로 보임.
- 현재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무장애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조례인 점에서 계단이나 그물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 동선이 길어지고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는 만큼, 공간 활용성과 함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다 사진 자료



6. 암스테르담 도심 및 운하

자전거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운하와 수변공간 활용방안 모색

가 방문지 정보



현지 명칭	Amsterdam
위 치	Amsterdam metropolitan area
면 적	219.32 km ²

- 암스테르담은 간척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로, 이름부터 ‘암스텔 강의 댐’ 을 의미하며, 100km 이상의 운하로 이루어진 도시임.
- 17세기 도심의 균형 발전과 이민족들의 주거지 개발, 수상 운송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통해 도심 곳곳이 수로와 운하로 만들어져 있어, 수상교통이 발달하였음.
- 운하로 이루어진 도심 때문에 교통로가 좁아 차량 운행 구간이나 주차 공간 문제가 심각하여, 암스테르담시에서는 자전거가 가장 큰 이동 수단인데, 이 덕분에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신호등 제도가 발달하여 소프트 모빌리티를 목표로 하는 타국들에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곳임.
- 또한 암스테르담은 전기차량이 가장 선도적으로 보급된 도시로, 시 자체에서 전기차량 보급을 위해 도심 내 900여 곳이 넘는 위치에 전기차량 충전소를 설치하여 주차와 함께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나 주요 시찰 내용 및 접목방안

- 암스테르담 도심의 거리는 운하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수변공간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상당히 익숙해 보였음. 그냥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택시를 타는 것처럼 수상버스가 다니고, 건물 앞에는 카누나 카약, 모터보트 등이 운하 곳곳에 정박해있었음. 암스테르담에서는 시험을 통과하여 소형 보트 운행 자격증을 얻으면 운하에서 카누와 카약 등을 일반인들도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함. 실제로 가족 단위로 타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고, 보트를 이용한 도시 관광을 즐기는 관광객들도 많았음.



보트를 이용하여 도시 관광 중인 모습

- 우리 서구의회에는 현재 서구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청라 호수 공원과 경인 아라뱃길의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카누·카약 등의 수상 레포츠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광 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 서구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안을 전문 용역을 통해 발굴하고자 함.
- 또한, 길거리와 골목마다 공공 주차 구역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두어 개씩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 덕분인지 암스테르담 도심에는 전기차들이 대부분이었음.
- 네덜란드에서는 나라 전체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택했는데, 2025년까지 새로 등록되는 차량의 50%를 전기 자동차 혹은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2030년까지 10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임. 이를 위해 2011년부터 전기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고, 주차 구역 우선권, 전용 주차 공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무엇보다,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빠르게 구성하여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던 것이 네덜란드가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이유라고 보는 시각이 많으며, 현재에도 세계에서 전기차 충전소 보유 대수로 1위인 국가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 충전소도 전체 충

전소의 절반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음. 2023년 6월 기준 네덜란드 전역에 51만 8천 대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38만 4천 2백여 대는 거주 구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사용 편의에 맞췄음.

- 전기차보다도 많이 보이는 교통수단은 바로 자전거로, 암스테르담은 자전거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전거 이용률이 높음.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이는 도로 한켠에 마련된 널찍한 자전거 전용 도로와 보행자용 신호등 아래에 위치한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대표적임. 또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경우 1km당 0.22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세금도 포함하지 않음.
- 이용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우선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 인프라와 실효성 있는 정책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사례들로 보임.

다 사진 자료



5 의원별 출장 후기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지영 의원

<열린공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

- 르 생카트르



시립장례식장이었던 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건물 정면에 OPEN 사인이 수없이 많이 걸려있고, 기관담당자의 첫 설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술인이나 지역주민, 관객 누구에게든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곳의 핵심 가치로 보여졌다. 실제로 메인홀과 뒷마당에는 줄넘기, 저글링, 댄스, 연기연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담당자에게 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예약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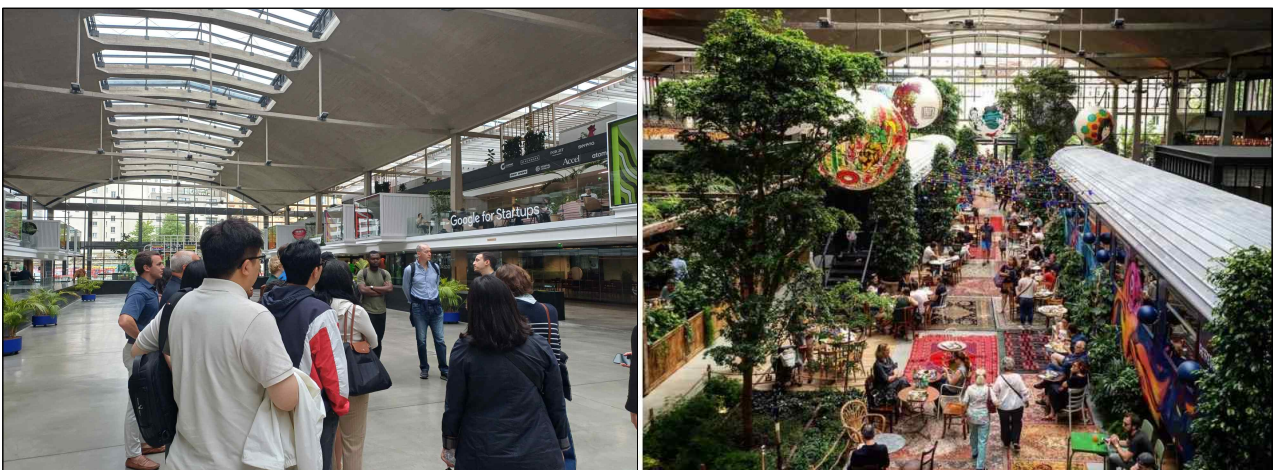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2층 사무공간은 예술인들의 공간답게 복도

가 핑크빛 조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연습실 앞에는 샤워실도 마련되어있었는데 공연예술가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차일드 케어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제약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메인홀이나 뒷마당에는 기획전시, 프로젝트공연 등이 연간 계획하에 꾸준히 이루어지는데, 이 공간을 꾸준히 찾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획팀의 노력이 엿보였다.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주민들에게도 열려있는 르 생카트르는 지역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기관들은 르 생카트르에 비해 조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스태이션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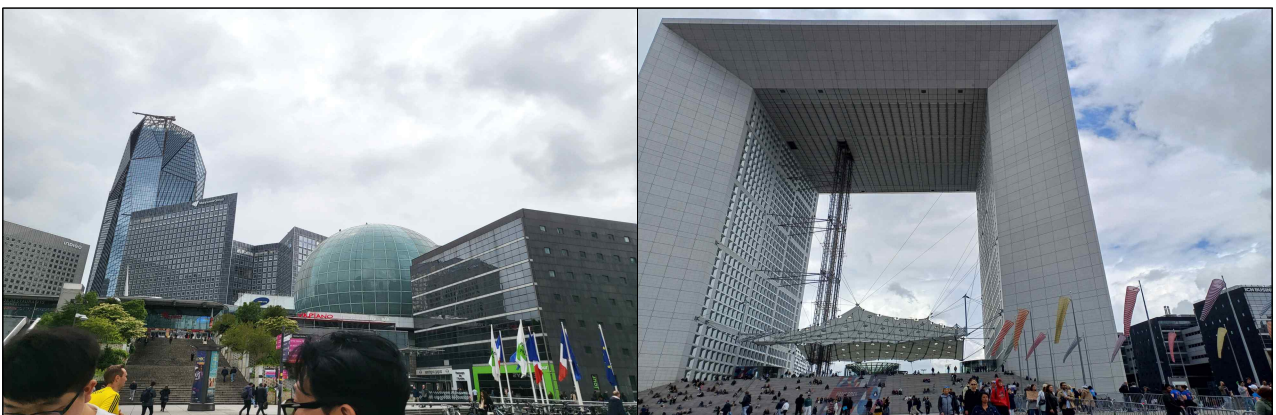
세계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타이션F는 스타이션이라는

이름처럼 실제 열차고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김동혁 의원이 F의 의미를 물었더니 Free라고 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프랑스 정보통신업체 Free의 CEO가 이곳의 설립자였다. 우리는 이곳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알고 방문했는데, 담당자는 이곳이 인큐베이터가 아닌 캠퍼스라고 했다.

스테이션F는 입주기업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었다. 또한 이곳에는 MS나 META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입주해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네트워크 리소스를 얻어가는 것이 큰 강점이 된다고 했다.

이곳의 카페테리아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했는데, 현대적으로 꾸며진 업무공간과 달리 카페테리아는 기차선로와 기차를 인테리어에 활용하여 이미 파리의 명물이라고 한다. 주민들에게 하나의 힐링 공간이 되고 있었다.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라데팡스



라데팡스 지상에 도착해서 느낀 첫 느낌은 ‘넓다’. 그러나 광장 주변에 들어선 개성 있는 건물들과 광장 중간중간에 있는 대형 조각들이 이 넓은 공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신 개선문 아래 계단이나 중앙의 잔디밭에는 늘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혼잡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이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동 중에 지하에 조성된 상점가에서 식사를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음식점마다 손님이 가득해 자리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라데팡스는 전혀 혼잡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가 방문한 날에는 마라톤대회와 함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편함 없이 구역을 돌아볼 수 있었다.

라데팡스의 지상에서는 차는 물론이고 도로조차 보이지 않는다. 고속도로와 지하철은 물론 일반도로와 주차장까지 모두 지하화했기 때문이다. 단절 없이 넓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이 넓은 공간을 주민들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대규모 공연장이나 경기장을 대체할 수 있으니 빈 공간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후 조성될 상부공간의 공원이 라데팡스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를 위해 공원에 너무 많은 시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주변 지역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개성 있는 건축물들이 들어선다면 주민들에게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

다.

이번 연수는 동료의원들과 직접 도시와 기관을 선택해서 준비했다. 왜 이 도시를, 기관을 방문하는지, 각 기관별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와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면서 연수의 내용을 채웠고, 연수를 가기 전에는 물리적 공간확보나 기존건축물 활용,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었다.

그러나 연수를 다녀온 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도시재생이나 개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을 채우게 될 사람의 몫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사람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찾게 만들어야 하고, 사람이 채울 몫을 남겨둬야 하는 것이다.

르 샹카트르의 핵심 가치인 OPEN,
스테이션F의 F는 FREE,
라데팡스의 열린 공간.

그곳에서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기에 사람들은 그곳을 찾는 것이 아닐까?

□ 서구의회 의장 송승환 의원

먼저, 이번 국외 연수는 일정, 기관 방문, 동선, 이동 방법 등의 모든 과정을 연수 일정 수개월 전부터 직접 방문해야 할 기관의 장점과 선진지 답사라는 틀을 토대로 모든 의원이 기획 과정을 말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였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획 과정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파리를 시작으로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도록 기획하고, 연수 과정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모든 국가를 이동하며 직접 견고 체험하는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양적으로 정말 많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7일이라는 연수 일정 동안 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유의미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중 감명 깊은 몇 가지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 스테이션F



국내에도 스타트업 즉 흔히들 일컫는 벤처기업이나 모험기업, 신생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있으며 그 정책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창업지원 센터 등이 그와 유사한 경우이다. 유형 또는 무형의 완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창업단계에서 비롯되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사무공간의 지원 부터 창업자들의 공모나 기타 활동들을 지원하고, 하나의 사무공간에서 완제품 형태의 OUTPUT이 나올 때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스테이션F의 형태는 그것보다 진보된 것이었다. 멘토링을 통한 창업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비즈니스의 모델, 시장조사, 경쟁 전략 등 비즈니스 전략에 대하여 서로 조언을 구하고, 고객 타겟팅, 제품에 대한 서비스 전략, 마케팅 캠페인 등 서로의 마케팅 전략을 공유한다.

어디 이뿐인가, 전 세계 유수의 투자회사들이 그들을 서포트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투자 전략, 투자자와의 관계 구축, 유치 방법 등 비즈니스 개방에 관한 전문적인 학습과 소통이 이 한 공간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스타트업에 준하는 창업자들은 리더쉽과 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이런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은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분명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우리 서구에 아주 중요한 롤모델이 될 것이다.

산업생태계는 점차적으로 생산의 영역에서 서비스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 서구의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도시개발의 부분에서는 언제나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를 표방한다. 현재 과정에 이러한 부분을 십분 적용한다면 어느 신도시나 그렇듯 주거 목적뿐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산업의 기틀이 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라운드컨트롤



우리 서구에는 상인과 소통하며 직접 구매가 가능한 재래시장이 몇 곳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화가 진행되며 대부분의 식료품을 비롯한 구매의 형태가 존재하는 곳은 대형마트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상대적

으로 재래시장과 같은 소비의 형태를 취하는 곳은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나 검단 지역에는 단 한 곳의 재래시장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 특히나 검단 지역의 경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평균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이란 측면을 보더라도 오래된 우편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복합문화공간인 그라운드 컨트롤은 우리 서구가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델일 것이란 확신이 든다.

원도심의 문화나 기록을 보존하면서 해당 공간을 지역 상인들로 하여금 이색적인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과 함께 각종 문화예술공간 체험 공간으로 어우러진 이곳이야말로 가공되지 않은 원도심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며 젊은 세대의 문화 충족 욕구를 맞춰줄 수 있는, 그야말로 전 연령대가 와서 즐길 수 있는 재래시장의 발전된 복합문화공간의 완성이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시도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제기동 경동시장과 청량리 청과물시장 사이를 보면 그 역사와 가치를 보존한 채 현대화된 문화예술공간을 접목시킨 공간이 하나 있다. ‘상생장’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복잡한 재래시장과 어우러져 청년들이 조성한, 그야말로 유니크한 공간에서 각종 음식과 함께 문화콘텐츠가 접목된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있다.

지역정치인들도 이러한 것을 공약으로 걸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어우러짐에 고민을 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말한 우리 서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많은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그에 비해 앵커 시설의 욕구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핵심이기도 하다.

파리의 그라운드 컨트롤처럼, 그리고 서울의 상생장처럼 기존의 원도심의 가치를 보존하며 재탄생하는 복합문화공간은 서구, 특히나 검단 지역의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만족을 주게 될 것이다.

- 네덜란드의 전기차량 충전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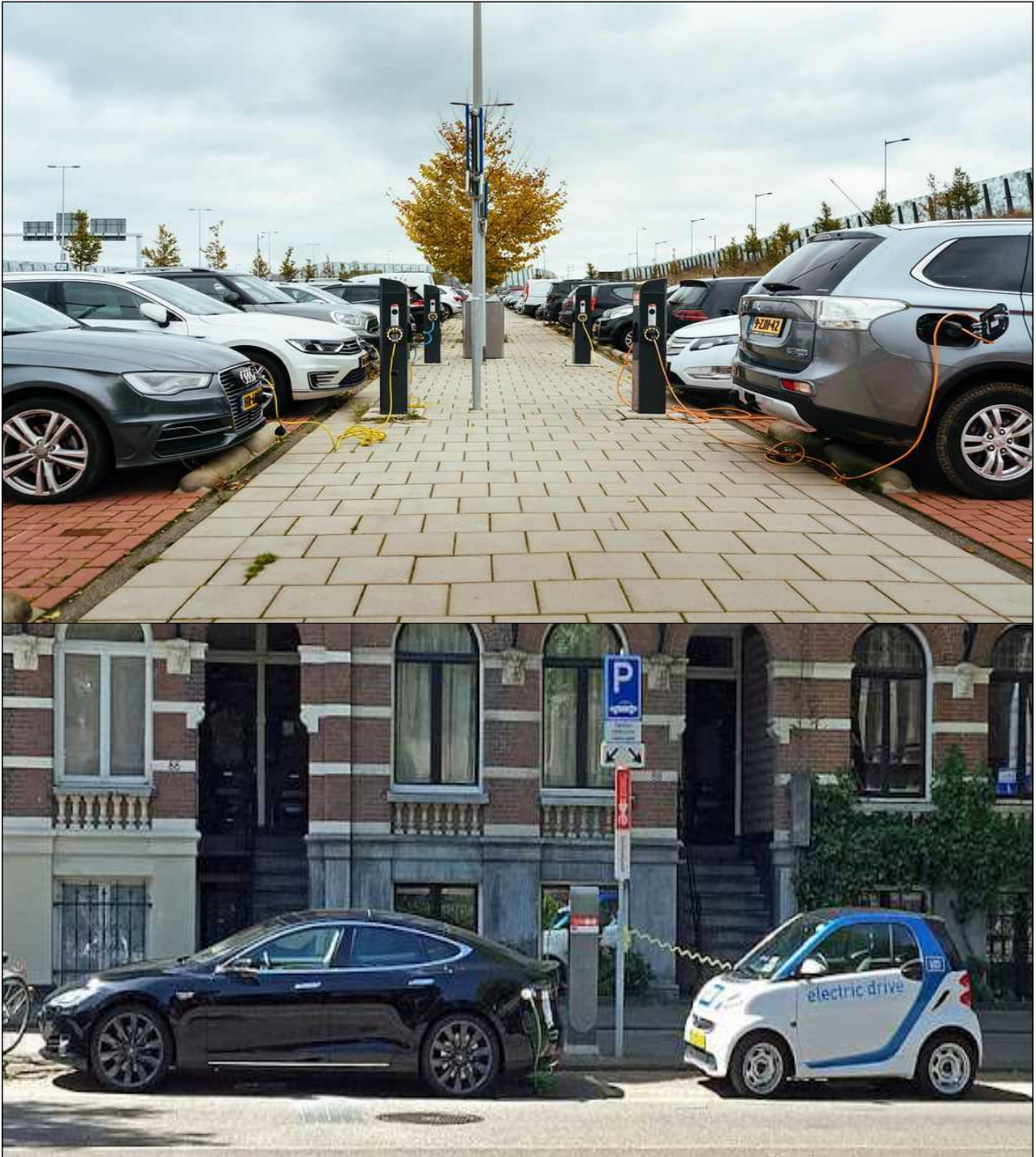
국내의 경우 친환경 차량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이다. 7~8년 전부터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충전 설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어 현재 대부분의 거점 공간(마트, 휴게시설, 주차장 등)에 급속 충전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고, 각종 법령과 시행령 등이 바뀌게 되어 지금은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친환경 차량 보급과 그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 역시 많은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실제 친환경 차량, 즉 전기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의 실질적인 수요와 충전 인프라 구축과정에는 많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덜란드 곳곳을 보며 느낀 것은 대한민국에 못지않게 충전 인프라 보급을 위해 세심히 노력한 부분들이 보인다.

아래 사진들과 대한민국의 사례를 비교하자면, 네덜란드는 노상 주

차장에 준하는 곳의 공간을 활용하여 완속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으며, 특히 대한민국에 널리 보급되어있는 완속 충전기 형태와 달리 도시 미관상 어떤 해가 되지도 않고 잘 어우러져 있다.

일전에 가로등 시설 및 기타 유사 시설을 활용한 완속 충전기 보급에 관련한 타 자치구의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다. 친환경 차량이 주차 공간 등에서 내연기관과 달리 특혜를 입는 전유물로 인식이 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차 공간과 충전 인프라 문제부터 네덜란드의 우수 사례를 통해 도시 미관까지 고려하는 충전 인프라 보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련된 조례 역시 현재 친환경차량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입장에 맞추어 조례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선 6월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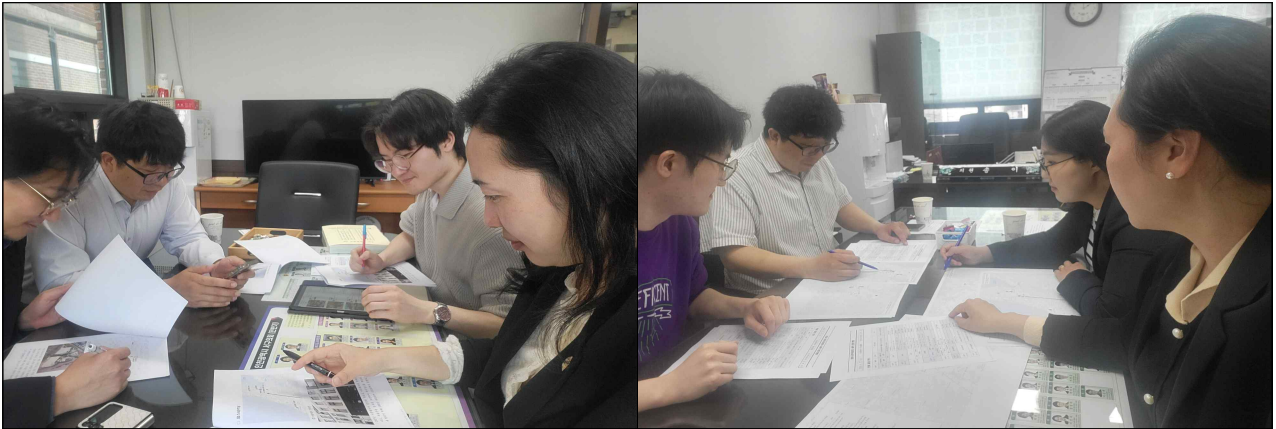
개정을 통해 충전 설비의 20% 이상은 급속충전기로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완화하여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의 설치 여부와 설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는 각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게 완속 충전기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관점을 두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법을 보더라도 전기차충전방해 금지법 조항을 보면 급속충전시설에서 일정 시간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게 된다. 공동주택 특성상 야간시간을 활용하여 주차 후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생계를 위해 영업용 전기차량을 운행하는 차주의 경우 주변에 위치한 충전시설을 야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충전 인프라의 조례 개정 역시 필수라고 생각한다.

네덜란드 곳곳에 있는 충전시설들은 이런 친환경 차량의 보급확산이란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적용한 흔적들이 보이며, 이는 우리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할 점이다.

□ 복지도시위원회 김동혁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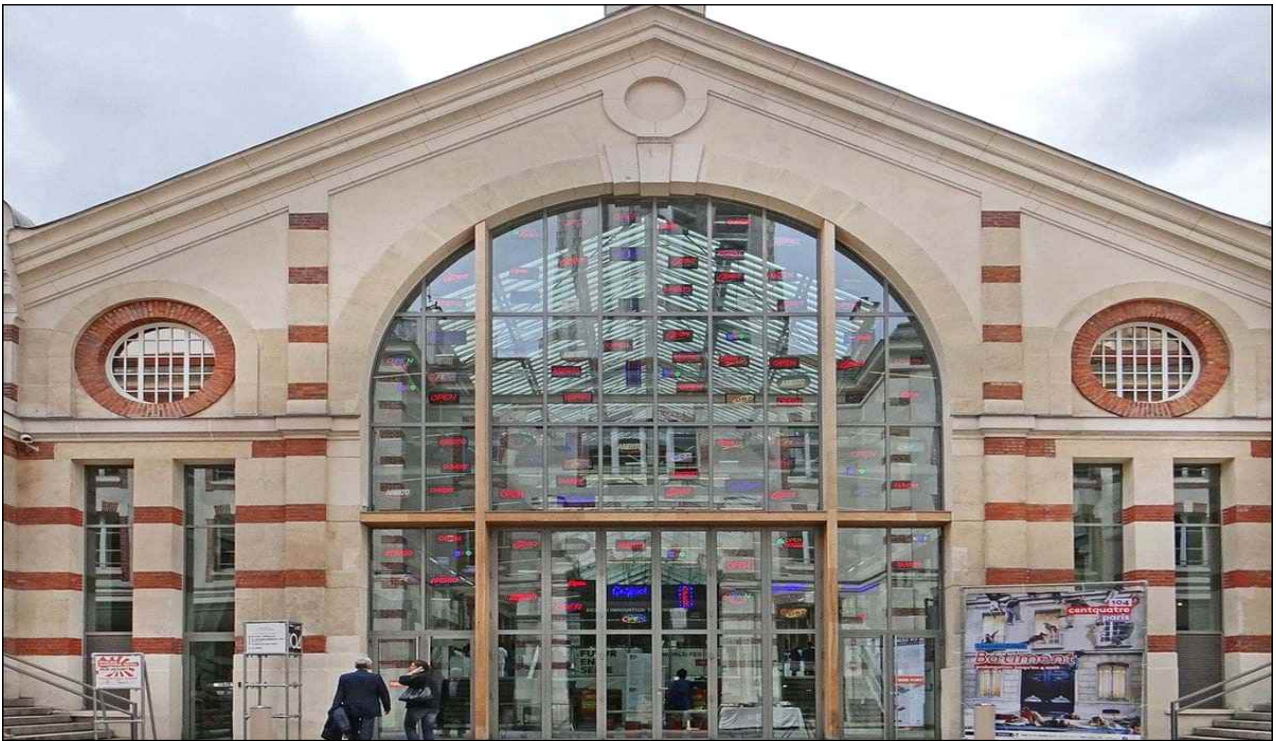
이번 국외 연수는 준비과정부터 조금 특별했다. 초여름이 다가오는 5월 말의 연수를 위해 겨울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의원들끼리 자주 모여 연수 주제와 국가, 동선을 정해보고 관내 사업과 연계된 기관, 방문 가능 여부까지 검색도 해보고 직접 연락도 취해보고, 이에 맞춰 동선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며 결정된 국외 연수라 그런지, 더욱 뜻깊고 인상 깊은 것들이 많았다. 이미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것이 궁금하고 어떤 점을 보고 싶었는지 파악을 해두어서인지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았고, 물어볼 것도 많았다.

이번 연수는 여러 가지를 다루었지만, 그중에서도 도시재생,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화·예술과의 결합이 가장 큰 주제였다. 우리는 연수 계획을 짜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하며 장단점과 한계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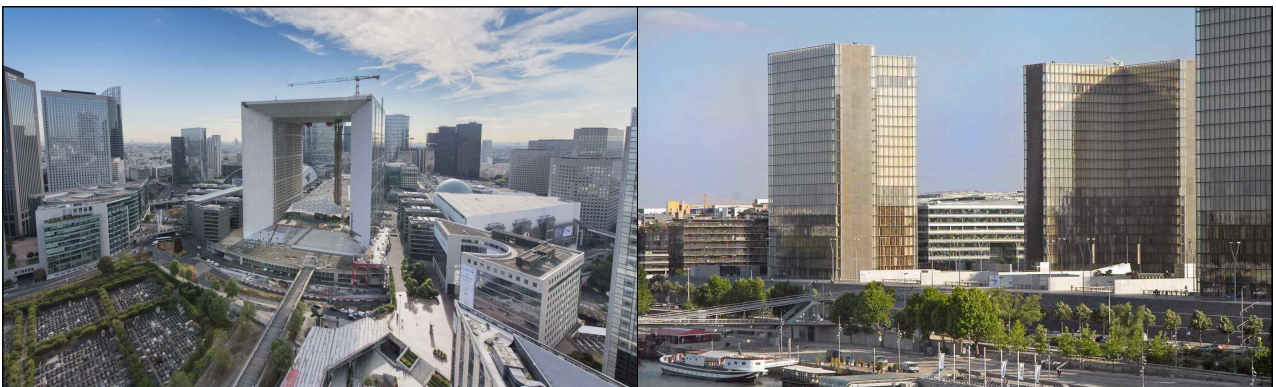
에 두세 곳씩 설정하였다. 예를 들자면, 르 생카트르 - NDSM, 르 생카트르 - 스테이션 F, 스테이션 F - 스타트업 빌리지, 라데팡스 - 리브고슈 개발지구처럼, 페어를 정하여 그 안에서도 비교 시찰이 가능하도록 정했는데, 동선과 일정에도 맞춰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결국 현지에서 불가피한 계획 변동이 있었지만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마련해둔 대체 장소들로 더욱 풍성하게 채울 수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 르 생카트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복지는 물론 문화·예술적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더 나아가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키워주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의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큰 인상을 남겼다. ‘혁신’이라는 핵심 가치와 예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창조물들을 끝없이 생산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결집한 장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동네 문화 회관처럼 보이는 작은 장소지만 그렇게 커다란 열정과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곳이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해나갈지 궁금해졌다.

또한 르 생카트르와 스테이션 F는 모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곳이었지만 르 생카트르는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이루어내어 혁신을 만들어간다면, 스테이션 F는 경쟁을 통해 자극을 얻고 자체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아무래도 르 생카트르는 초기 그룹의 육성을 중점으로 두는 곳이고 스테이션 F는 성장을 주로 하는 곳이며, 르 생카트르와 같이 예술을 소재로 하는 경우 정형화된 결과물이 없다 보니 경쟁을 하기에 모호했을 것이다. 두 방법 모두 정답이란 없고, 각 스타트업의 성향에 맞는 방법이니 추후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참고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브고슈 프로젝트와 라데팡스 지구도 인상 깊었던 곳이었다. 철저한 재개발 계획과 오랜 정책적 연구 끝에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점도 인상 깊은데, 그게 무려 인공지반 위에 건축물들을 올려 도시

전체를 탈바꿈시킨 대규모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점이 신기하면서도 놀라웠다. 당장 몇 년 안에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앞둔 우리구가 눈여겨봐야 할 모범 사례로, 도심 속 골칫덩이였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더하여 관광 효과 및 교통 편의성까지 얻을 수 있었으니 과연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도시재생의 사례일 만 했다. 폭우로 인해 안타깝게도 계획했던 만큼의 탐방은 할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면 인공지반이라고 실감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도시 미관을 해치지도 않고 성공적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라데팡스의 각종 예술품과 세련된 건축물들은 파리 중심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느낌을 선사하여, 고작 몇 분 거리임에도 아예 다른 곳에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를 다니며 느낀 점은, 공간 활용의 중요성이었다. 폐건물이라고 해서 바로 철거하거나 새로 짓기에 급급하기 보단,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고심해보고,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도는 결국 새로운 기회이다. 누군가의 눈에는 이미 허물어져가는 폐건물이고 쓰러져가는 동네이지만, 그간 모자랐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연속적이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 복지도시위원회 송이 의원

도시재생 사례와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문화 관광 분야의 선진사례를 비교 시찰하기 위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프랑스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기대가 더욱 컸고, 특히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리브고슈와 루원시티의 초기 모델이었던 라데팡스를 방문해 서구와 비교해보고 싶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 방문이 주된 목적이었고, 네덜란드는 대운하의 도시답게 운하의 활용방안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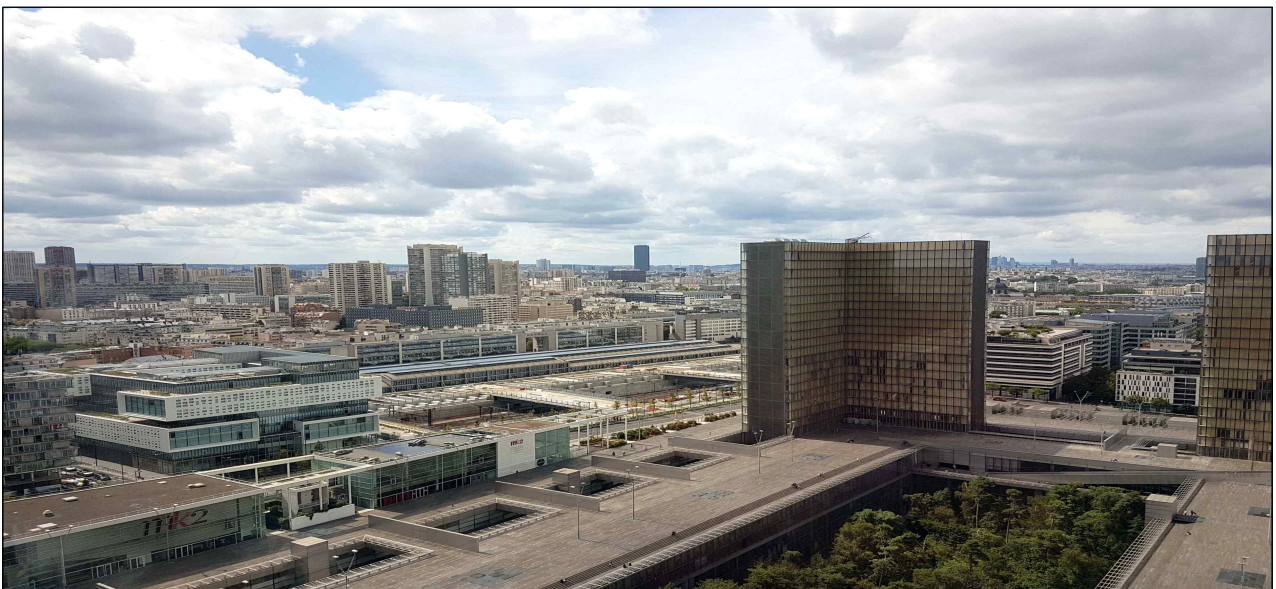
의원 개개인이 서구의 주요 사업과 접목할 주제와 장소를 사전에 조사했고, 일정 조율 및 예약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진행했다. 나라만 정하면 여행사에서 일정을 짜고 예약을 해주는 기존의 공무 국외연수 방식과 달리,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 연수를 계획하니 배우는 것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다.



철저하게 서구와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했고, 도보, 지하철, 기차 등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교통 시스템은 물론 기관 방문으로만 느낄 수 없는 현지의 문화 환경을 최대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리브고슈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리브고슈는 도심과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철도로 인해 센 강과 단절되고 폐허가 된 공장지대였다고 한다. 91년부터 이 부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고 이를 위해 파리시 주도로 기업도 설립되었다. 지하에는 기존처럼 철도가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위에 인공지반을 만들어 상업, 주거, 문화, 녹지공간을 적절하게 배분해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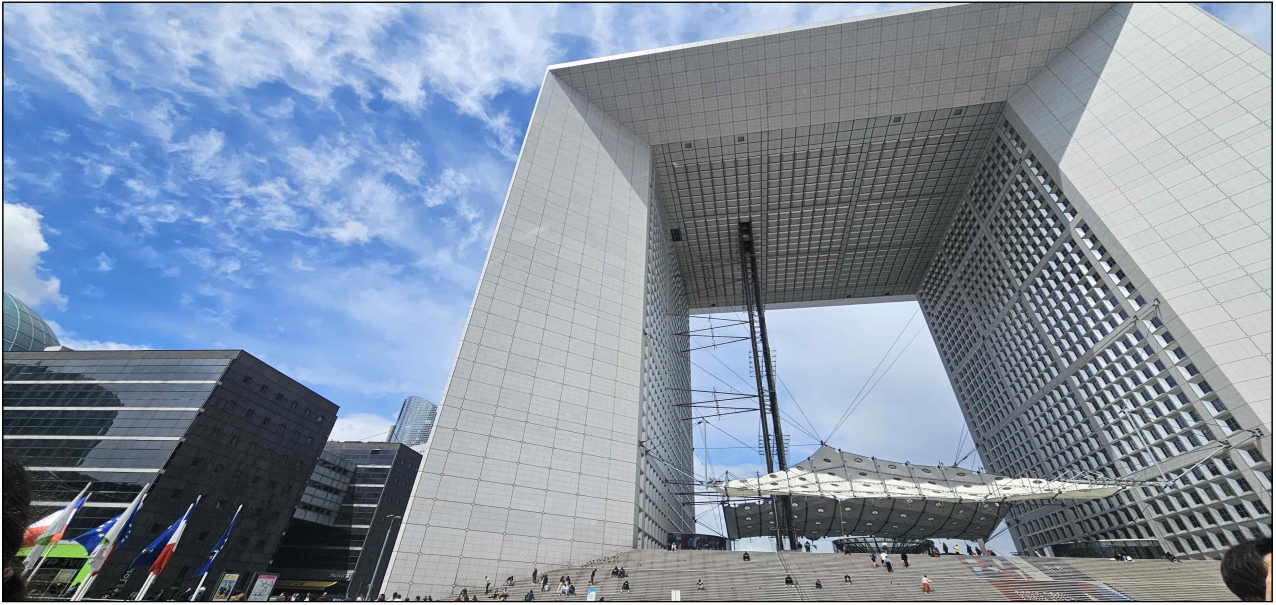
사업이 장기화 되다보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아예 변경하

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리브고슈는 본래 계획에서 큰 변화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특히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리, 사회, 문화, 미관,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갖춰져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 충족되도록 복합 개발된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우리 서구도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30년이 넘도록 단절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 방음벽 인근은 심각하게 노후화돼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인천대로 인근이 지하화 된다고 하지만 상부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먹구구식 개발보다도, 리브고슈의 사례처럼 민-관 합작회사를 설립해 구역별 개발 컨셉과 발전 방향을 잡고 개발한다면 단순히 지하도로 건설과 상부공간 공원화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 주도의 사업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사업의 방식을 접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프랑스 라데팡스와 루원시티, 청라국제도시

리브고슈는 도시재생이었다면 라데팡스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 생겨난 곳이다. 파리 도심과 비교했을 때 건물이나 환경이 매우 달랐고, 주로 업무용 빌딩과 주택이 주로 구성되어 있어 흡사 이곳이 한국인지 파리인지 체감이 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라데팡스를 찾는 이유는 신 개선문 때문일 것이다.



라데팡스에는 신 개선문이 건설되어 있는데 신 개선문에서 일직선으로 보았을 때 개선문-상제리제거리-루브르 박물관이 한 축으로 이어져 있다고 한다. 그냥 구조물로 인식했는데 설명을 듣자 신-구가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 신도시임에도 발전사를 한눈에 보는 느낌이 들어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했다.

흔히 파리를 관광도시라고 한다. 비단 에펠탑이 있고 루브르가 있어서가 아니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에 능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하더라도 그곳의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건축물도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한국판 라데팡스를 만들겠다던 루원시티가 그 컨셉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를 현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한편 우리 서구도 신도시를 건설할 때 역사적 의미를 살려 도시개발을 진행했다면 지금과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

다. 과거 서부지역의 중심이었던 가정오거리와 청라도를 매립해 탄생한 청라국제도시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저 초고층 랜드마크를 만들고 섬이던 곳에 전망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해당 지역에 유래되어 오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공원이든 건축물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다른 신도시와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구문화원사를 하루빨리 건립하고, 문화원에서 추진 중인 아카이빙 사업을 더욱 지원해 서구만의 아이덴티티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이 될 것 같다.

르 생카르트, 자유로운 문화 창업공간

르 생카르트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건물 안을 들어서면 연령, 장르, 성별과 상관없이 1인 연기를 연습하는 사람부터 덤블링, 춤, 노래 등등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방문했을 때는 공간 중앙에서 사진 특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라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문화고 예술이라는 생각을 그곳의 사람들을 보며 깨달을 수 있었다. 문화를 대하는 사회적인 차이가 같은 공간도 다르게 이용하게 하는 것 같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층에 위치한 창업 공간이었다. 이곳은 분야를 한정 짓지 않고 오직 ‘혁신’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곳

을 선발해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어떤 곳은 IT를, 또 어떤 곳은 예술을, 미술을 하는 창업자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기술이나 분야를 한정 짓지않다 보니 동종업계 간 경쟁을 자연스럽게 피하고, 다양한 분야가 협업하여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했다.

우리 서구도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마을, 청년 기업 인증 등 창업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간지원, 예산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성장할지, 그것이 우리 서구에 어떤 의미인지 등을 고려한 입주 조건들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더욱 내실 있는 창업지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대운하의 도시 네덜란드와 경인아라뱃길·청라호수공원

네덜란드는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운하를 건설했다. 그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계류장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도로 끝에 설치된 파이프에 줄로 배를 묶어 두는가 하면 가족 단위로 곳곳에서 카약을 즐기고 큰 수로에서는 관광 배가 운행하고 있었다.



현재 대표의원으로 서구의회에서 서구의 물길을 하나로 잇는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를 연구단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서구는 경인아라뱃길과 청라호수공원, 심곡천·공촌천 등 그야말로 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다. 그런데도 이런 수변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 청라호수공원은 하나의 어항처럼 물만 가둬두고 있고, 아라뱃길 인근은 기능을 잃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그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질개선, 경관개선, 계류장 확대, 발전 방향 수립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운하를 보니 물과 친숙해지는 것, 삶의 일부가 되는 것, 가볍게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서구에서 카누·카약을 즐기시는 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일반 주민 무료 체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한편 카약을 타며 쓰레기를 정화할 수 있는 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구의 수상 레저관광지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선진지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의정활동을 할 때 이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접목해 의미 있는 사업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